

동화처럼 읽는

김명호 원음



마운틴뷰 재림교회

동화처럼 읽는

김명호 외음



동화처럼 읽는 동화법

책머리에 -----	5
I. 동화의 원리 -----	7
1. 동화의 뜻 -----	8
2. 어린이와 동화 세계 -----	9
3. 동화의 영향 -----	17
1). 상상력의 계발 -----	17
2). 정서의 순화 -----	22
3). 인격의 기반을 닦는다. -----	24
4. 동화의 사명 -----	26
1). 본질적 사명 -----	26
2). 부수적 사명 -----	29
5. 동화의 종류 -----	30
1). 우화 -----	30
2). 신화 -----	33
3). 전설 -----	34
4). 전기 -----	35
5). 생활 동화 -----	35
6). 종교 동화-성경 동화 -----	35
7). 목적 동화 -----	37
8). 순수 동화-----	37
6. 동화의 분류 -----	38
1). 구연 동화 -----	38
2). 문예 동화 -----	38
7. 동화의 진실 -----	39
8. 동화, 훈화 아동 설교 -----	44
1). 어떤 사람은 오해하고 있다. -----	44

2). 아동 설교 -----	45
-----------------	----

II. 동화하는 법 ----- 47

1. 동화하려 나가지 전에 -----	49
1) 동화 잘하는 선생들의 동화하는 것을 견학할 것 -----	50
2). 동화를 많이 읽을 것 -----	51
(1). 주제를 정확히 파악할 것 -----	52
(2). 구성을 분석할 것 -----	52
(3). 소재를 검토할 것 -----	53
3). 동화를 써 볼 것 -----	54
4). 음성 훈련 -----	54
2. 동화하려 나가기 위하여 -----	55
1). 동화의 선택 -----	56
(1). 진리가 포함된 동화 일 것 -----	56
(2). 적극적인 진리일 것 -----	56
(3). 단일 목적인 것 -----	57
(4). 연극적인 것 -----	58
(5). 동심에서 우러난 것 -----	58
(6). 생활에서 소재를 떠한 것 -----	58
(7). 실감을 주는 내용인 것 -----	59
2). 선택된 동화를 요리할 것 -----	59
(1). 확대법 -----	60
(2). 축소법 -----	65
(3). 절단법 -----	66
(4). 반복법 -----	67
(5). 휴지부 설치법 -----	69
(6). 동화를 재구성해 볼 것 -----	69

3). 동화의 보조 재료 수집 -----	72
(1). 동화 환경 그림 준비 -----	73
(2). 동화와 관계 있는 음악 준비 -----	73
(3). 동화에 나오는 풍속을 알아 둘것 -----	73
4). 혼자 연습할 것 -----	74
5). 모든 준비를 재검토할 것 -----	75
3. 동화하러 나가서 -----	75
1). 단상에 오를 때 -----	76
2). 단상에서 -----	77
3). 동화를 시작하여 -----	79
(1). 명쾌하게 할 것 -----	79
(2). 자연스럽게 할 것 -----	79
(3). 개성을 살릴 것 -----	79
(4). 동화에 동화(同化) 할 것 -----	80
(5). 음성을 바르게 활용할 것 -----	80
(6). 허를 감추기 -----	81
(7). 메모를 이용할 것 -----	82
(8). 청중의 반응을 살필 것 -----	82
4. 동화가 끝나고 -----	83
5. 동화의 정도 -----	83



책머리에

1962년 어느 날이다. 당시 영남 대회 어린이 주임이 내게, “동화법을 강론해야 하겠는데 마땅한 교재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땅한 책을 좀 구해 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했다. 나는 당시 대구에 있는 서점들을 돌면서 그런 책을 찾아보았으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주제넘은 생각을 했다. ‘내가 써 보리라’.

나는 장로교회에 다닐 때에 유년 주일학교 교사로서 해마다 개최되는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 수양회에 빠지지 않고 다녔다. 거기서 여러 강사들로부터 이야기법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기타 소설작법이나, 시(詩) 작법 등 유사한 책에서 자료를 모으면 간단한 방법론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원고지도 없이 백지에 동화법을 쓰기 시작하였다. 만년필로 써 내려간 글은 16절지 백지로 60여 쪽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어린이 주임에게 전해 주었었다.

그 후에 그 남편 되시는 영남대회 선교 안교부장 목사님이 “김선생, 이것 아주 걸작이요. 출판하면 베스트셀러가 문제없겠어요.”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일이 있고도 세월이 흘러서, 이 글을 쓴 34년 후인 지금, 교회에서 어린이 이야기 시간을 맡은 분들의 수고를 보면서 도와 줄 방법을 생각하다가 동화법을 적은 글이 다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컴퓨터에 옮기고 조그만 책으로 엮어 보기로 하였다.

지금 읽어보면 구세대의 글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또한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오늘날 너무 정서가 삭막해진 세상이라서 오히려 이런 글이 필요

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듈다. 기계에 매여 정서가 기계처럼 차가워지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에 좋은 정서를 함양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정서를 함양할 기회를 평생 잊어버리게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정서 계발의 숲으로 동화의 세계는 필요한 것이다. 아기를 양육하는 젊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교회에서 어린이 이야기를 맡아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펴내려고 한다. 어린이들에게 신앙을 심어 주고 신앙 지식을 주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며, 이것은 장년들을 목회 하는 것보다 훨씬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현실에 나의 이 작은 글, 옛날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글쓴이로서는 행복할 것이다.

유년 교사뿐 아니라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모두 이 글이 나타낸 그런 동화가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이렇게 하려는 모든 이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바라면서 글머리를 삼고자 한다.

이 글을 책으로 펴내는데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1996년 12월 2일 서니베일 우거에서
글쓴이 김명호 적음

I. 동화의 원리

이것은 옛날의 정경이다.

겨울 문풍지를 후려치는 바람이 문풍지 울음소리에 섞여 방안으로 스며들어 따뜻한 자리라도 얻고 싶은 저녁 무렵, 새파란 하늘에 별 떨기들도 오순도순 입을 모으고 반짝여 추위를 잊으려는 정다운 얘기를 주고받는 시간에 아기들은 온돌 방구들목 이불에 발을 묻고 엎드려 할머니를 조른다.

“흥, 할머니 이야기 하나”

“또 얘기는 무슨 얘기를”

“흐음, 아무 거라도”

손자들의 귀여운 음석에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하품을 한번 크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옛날 옛적에 간 날 간 적에...”

수십 번도 더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앓을 만도 하건마는 듣고 싶은 손자들은 토끼 귀 모양 쫑긋거리며 할머니 입으로 귀를 모으다가 어느새 이야기 속의 세계를 꿈나라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추위도 없다. 문풍지를 성가시도록 흔들어 대는 심술궂은 바람도 없다. 한없이 다사롭고 부드러운 헛빛과 즐거운 노래의 동산과 인정이 똑똑 흐르는 자연의 세계가 있다. 안식처인 것이다.

할머니의 주름 잡힌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신기한 옛말, 그 속에는 어린 손자들의 한없는 안식처요 낙원이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이 이야기요 동화의 세계이다. 어린이들은 그 속에서 상상과 공상의 날개를 별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지를 날아다니는 동안 어느덧 그것은 바로 그 어린 넋들의 현실이 되고 생활이 되어 버

리는 것이다. 나 역시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오늘도 동화를 읽노라면 먼 어린 시절의 푸른 동산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그 속으로 한없이 감미로운 정서가 마음속에 흘러 들어옴을 느끼는 것은 아직도 미숙한 탓일까!

누구나 다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동화나 이야기의 기술적 면으로 다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없다기보다는 터득하지 못해서-동화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별 쐐 어른이라는 세계가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 정말 그래서 동화는 어린이들의 세계요 어린이 같은 마음에만 깃들이는 보배인지도 모른다. 그런 만치 여기에는 기술이라는 수련과 그보다 본래적으로 어린이의 마음과 그 세계를 지녀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일까?

1. 동화의 뜻

동화란 한자로 童話라고 쓴다.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뜻일 것이다. 한자를 그대로 새긴 것이며, 우리 나라 말로 어린이들의 이야기라고나 할까.

영어로는 Nursery tale 혹은 Fairy tale 이라 하여 아기 방의 얘기 혹은 요정의 (요정같이 아름다운) 얘기라는 뜻이겠다. 요정이라는 말이 막연하지만 어린이의 세계에서는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채색되어 있는 하나의 인격이다. 그리고 보면 모든 어린이의 상상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말이라고 하겠다. 아기 방의 얘기 혹은 육아실(育兒室)의 얘기라는 말은 이 얘기가 이제 자라는 아가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얘기라는 뜻도 되겠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기로 하자.

동화... 아동 문학의 한 부분, 어린이를 상대로 동심을 기초로 하여 지은 이야기.

이 외에 다른 설명이 더 있으나, 골자는 위의 설명이다. 결국 어린이의 마음을 기초로 그 마음에 스며드는, 그리하여 어린이의 정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이야기라는 뜻일 것이다.

요는 그 단어의 어의(語義)가 어떠하고 내용이 어떠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동화는 동화이어야 할 것이다. 결코 어른들의 세계가 아니요, 무지개를 바라보고 선녀의 사다리 인줄 아는 그 어린이들만의 얘기를 동화라고 해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바로 어린이의 그러한 마음 안에 깃들인 언어가 표현하는 그 영역을 너머 그 예민하고 섬세한 어린 심령에 도무지 말글로 기록할 수 없는 그 다사로운 정감으로 가만 가만 두드리고 세포마다 스며드는 그 정서들의 열매가 동화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보면 동화란 일반적으로 일컫는 이야기라는 영역을 넘은 하나의 도덕적 가치와 수양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귀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섬세한 학문적 예술이다. 그러면서 그 심령 깊은 곳에 가장 진실 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씨앗을 짹틔우는 물줄기인 것이다.

2. 어린이와 동화 세계

어린이들의 생활은 동화 그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오히려 바보같이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어린이의 세계에서는 가장 비중이 큰 중요로운 일들이 되는 것이다.

동화 그것은 어린이의 세계를 깊은 속까지 관조한 후

에 어린이들이 표현은 못하나 그대로 생활하는 바로 그것을 똑바로 꼬집어 어린이의 귀에 들려줌으로 그 생활을 새로운 지식적 경험으로 쌓게 하는 수단이다. 결국, 어린이의 생활 호흡이니 만치 어린이의 세계에는 동화가 떼어질 수가 없다. 그것을 호흡하는 어린이들이야 그 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동화는 어린이들의 생활 호흡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린이들 자신이 꼭 꼬집어 내어 그것이 바로 무엇 무엇이다 라고 표현 못한 그것을 깊은 통찰과 관조로 그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들로 들려줄 때 곧, 그들의 호흡을 그들 앞에 아기자기한 사건으로 펼치어 나갈 때 잠깐 받는 인상이나 그들의 생활에 재음미된 사건이 되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정서 순화와 생활 감정 윤택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바로 그들 어린이 자신의 직접적인 세계(현실이나 혹은 정신적)인 만큼, 그 이야기 속에 자기 자신을 직접 투신시키는 것이다.

옛날 미국에서 어떤 범죄자를 체포하게 되었다. 그 범죄 동기를 캐어 낸을 때, 그는 동화에서 받은 충격이 바로 자기를 동화의 주인공의 입장에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좀 나쁜 방향이긴 하지만 그 동화의 세계가, 성인(成人)이 되어서까지 실지 생활 자체가 된 것을 실제로 보는 것인데 이처럼 어린이는 동화를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문호 스티븐슨은 어릴 때 몸이 너무 약해서 높은 수준의 학교 교육은 받지 못하였으나 그가 일국의 문호로 화려한 성공을 거둔 것은 그 부모(父母)들의 들려준바 동화의 힘이 컸다는 것을 그 유년기의 전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여름날, 이른 아침, 그날 따라 일찍 일어난 5살 박이 분이는 아직도 이슬이 마르지 아니한 정원의 풀잎을 보았다. 송글송글 구슬처럼 맷혀 대롱거리는 이슬방울들. 그것은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평범한 싱거워진 사실이었지만 분이의 눈에는 이상하게 비쳐 왔다. 분이는 동당 걸음으로 부엌에 뛰어 와서는

“엄마, 풀잎에 땀이 났네요. 엄마처럼 힘든 일을 했나 봐.”

얼마나 귀엽고 재롱스런 생각인가.

동화의 세계는 바로 이렇게 풀이 일을 하고 땀을 쥘리는 세계요, 양지쪽 담 밑에 올망졸망 모여 앉아 소꿉놀이 하며, 풀 뜯어 반찬하고 흙으로 밥을 하여 흐륵흐륵 들이키며 마주보고 웃는 그 얼굴들은 바로 어른들이 산해 진미 진수성찬에 배를 두들겨 먹고 즐거워하는 그 얼굴들보다도 더 즐거운 얼굴들이며 풀잎 반찬 흙밥이 바로 산해 진미가 되는 그 세계가 동화의 세계다.

둘러앉은 아이들이 흙을 밥이라 하고 풀잎을 김치라 한다 해서 거짓말쟁이라고 욕하고 나무랄 아이가 없고, 그 모습을 보는 어른들이 저런 거짓된 일만 한다고 욕할 이 없다. 이처럼 순진하고 참한 일들이 동화 세계인 것이다.

동화 세계에는 거짓이 없다.

어느 나라의 어떤 귀족 가정에서의 이야기다. 4살 짜리 아들이 혼자 결상을 동무하여 놀고 있었다. 순간 그 어린이에게는 세상에 들도 없는 동무가 결상이요, 결상과 마주 앉아 노는 순간이야말로 한없이 즐거운 시간이었고, 별째 결상은 그 어린이에게는 하나의 인격으로 승화되어 있는, 어린이와 호흡을 같이 하는 생명이지 결코 물건 결상은 아니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다정하던 걸상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어린이는 걸상을 달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이 못마땅하여 토라져 버린 걸상은 도무지 조금 전의 그 꿀같던 친밀감을 회복하려 들지를 않았다. 안타까워 어쩔줄 모르던 어린이는 하는 수 없이 화해자를 찾기로 했다. 생각하니 유일의 화해자로써의 자격자가 어머니임에 틀림없었다. 종종 걸음으로 어머니에게 뛰어간 귀여운 아가는

“엄마, 걸상이 내 말 안들어. 좀 듣게 해줘”

하고 안타까운 호소를 한다.

“무어!”

어머니는 귀를 세웠다. 엄격한 귀족 집안에서 자란 어머니는 지금 이 사랑스런 아가의 소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걸상 말 안들어.”

“뭐, 걸상이? 얘, 걸상이 무슨 말을 듣니? 아직 죄그만 녀석이 벌써 거짓말이야.”

“아니 참말.....”

“참말은 무어 참말! 거짓말을 자꾸 그렇게 하니, 걸상이 무슨 말을 들어?”

자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안타까운 어머니는 성인(成人)의 세계에서 이미 어린이의 환상을 잃어버린, 물기 없는 거친 정서만 풍물고 있는 마음이라 성인(成人)으로써의 진실성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가는 화해자를 얻기는커녕 질책을 받고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들 다 안타깝다.

이런저런 불쾌한 중에 아버지의 퇴근 시간이 이르렀다.

어머니는 아가의 장래를 염려하며 아버지에게 낮의

사실을 고해 바치며 꾸중하기를 권한다. 정말 이때처럼 고독한 아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요행 아버지는 아가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었다. 빙그레 웃으며 아가 방으로 갔을 때 아가는 아직도 성이 풀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증재는 곧 성공했다. 아가는 걸상과 다시 친해졌고 곧 명랑해졌다.

“여보, 어린이의 꿈의 세계는 제가 관계하는 모든 것 이 인격이란 걸 이해해 두면 좋을거요.”

우리의 많은 어머니들과 아버지, 오빠 언니들이 이러한 아가의 세계를 사르어 먹고 말았다. 아가의 입장에서 아가를 생각하는 시간은 벌써 올챙이 때의 일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네 아가는 그 주위가 삭막하다. 고독하다.

우리 성인(成人)들은 교육을 위해서나 심리적인 올바른 이해와 지도를 위해서 이 아가의 세계, 동화의 세계의 현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린 이를 다루는데는 거룩한 엄격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만 바로 이러한 동화 세계의 한복판에 자신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꿈이 있어야 한다.

윤석중 선생의 동시 중에 “넉점 반”이란 것이 있다. 동화를 말하는 길섶에서 갑작스레 동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상스러울지 모르나 바로 동화의 그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기록해 보는 것이다.

아기가 아기가
가겟집에 가서
“영감님, 영감님,
엄마가 시방
몇 시냐구요.”
“넉점 반이다.”

“넉점 반
넉점 반.”
아기는 오다가 물먹는 닭
한참 서서 구경하고

“넉점 반
넉점 반.”
아기는 오다가 개미 거동
한참 앉아 구경하고
“넉점 반
넉점 반.”
아기는 오다가 잠자리 따라
한참 돌아다니고

“넉점 반
넉점 반.”
아기는 오다가
분꽃 따 물고 니나니 니나니
해가 끝딱 쟈 돌아왔다.

“엄마,
시방 넉점 반이래.”
엄마의 심부름을 간 아가의 거동을 영화를 보듯, 몇
줄 안되는 시 속에 얼마나 선명하게 펼쳐 놓았는가. 아
가의 세계는 시간에 조바심을 태우는 엄마의 세계가 아
니다. 정말 아가에게는 해가 끝딱 진 그때까지도 그대로
“넉점 반”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시간 심부름을 보낸 엄마의 얼굴을 보자.

아가가 이제나 돌아오나,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귀가 번쩍 한다. 벌써 심부름 간지가 한 점은 족히 지났음직 한데, 아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어느덧 해거름에 땅거미가 내린다.

“아이구 저녁밥이 늦겠구나”

엄마에 이마에 쌩심지가 돋고 마음에 부아가 끓어오른다. 부랴부랴 부산을 떨며 부엌 드나들기가 바쁜데 어느덧 해는 서산을 꼴깍 넘어 버렸다. 천진한 아가는 그냥 베를처럼 되어 버린 “넉점 반”을 노래 부르면서 사립문을 밀었다.

“엄마, 시방 넉점 반이래.”

상기된 얼굴에는 생글생글 밝은 미소가 담뿍 서려 있는 채로 부엌문을 밀면서 한참 신경질이 올라 있는 어머니에게 내어 뺏은 말이다.

“뭐, 어째, 머이 지금 넉점 반이야, 영!”

구김살 없이 천진하던 아가의 마음은 읊절 놀란다. 시무룩해지며, 마음속에 한 점 구름이 끼어 퍼지기 시작한다. 뾰로통하게 입술을 내어 밀고

“뭐, 할아버지가 넉점 반이라는 데 뭐.”

“심부름 간지가 언제야, 뭣하고 해가 꼴깍 쪘서, ‘넉점 반’은 뭐가 넉점 반, 거리가, 거리가, 아이, 보기 싫어!”

그만 부은 아가의 입술은 그대로 나팔이 되어 버린다. 봄날 양지쪽에서 따사로운 햇살 아래 물먹던 닭의 모습도, 기다랗게 이삿짐을 잊고 있던 개미의 거동도, 잠자리의 고 보드라운 날개 모양도, 분꽃 나팔의 재미있던 꿈도 삽시간에 휘몰아치는 질풍 속에 꺼져 버리고 아가의 마음은 암담해지는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은 아가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잘못한 아가를 맞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린이 세계 곧, 동화의 세계를 속 깊이 알았다면, 그 순간이 바로 그 아가를 올바른 길로 가르쳐 인도할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오냐, 이제 오냐, 할아버지가 넉점 반이라더냐?”

“응, 넉점 반이래, 길다란 담뱃대 물고, 주머니 시계보고 그랬어.”

“오냐, 참 착하지 우리 아가, 그런데 오면서 뭘 했지? 재롱 동이처럼 그러나 열적게 웃으면서 쳐다본 어머니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웃고 계시는 얼굴, 결코 꾸중할 무서운 얼굴은 아니다.

‘흠, 우리 엄마 제일이야.’

아가는 우선 겁을 내지 않아도 좋다. 꾸지람이 없겠으므로 마음이 가볍다.

“응, 오다가 동장네 마당에 닭 물먹는 것 한참 봤어.”

“오냐, 그래, 닭 물먹는 것 보니 재미있었어?”

“응, 엄마, 그리고 또 개미 이사하는 것 봤어, 최근만 개미들이 막 출서서 가던데 뭘!”

“오 그랬나.”

“또 있어 엄마, 잠자리 잡으려 한참 따라 다녔지, 곧 잡을뻔 했는데, 그만 놓쳤어, 그러다 보니 분꽃이 피었잖아, 그래서 한참 분꽃 나팔 불었지 뭐, 헤헤... 엄마, 그래도 나 넉점 반 안 잊었어.”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하지만 얼마나 구김살 없는 아름다운 마음씨인가.

“오냐, 참 착하구나. 그렇지만 엄마는 네가 이제나 오나 하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아가는 엄마 너무 기다리도록 하는 것 좋으냐?”

“으으음”

“그럼 이제는 심부름 먼저 하고 구경은 나중에 해,

음?”

“음, 그래.”

동화의 세계 어린이의 세계는 이리하여 순화되고, 오늘 하루 어린이의 심부름은 멋진 동화로 혹은 이처럼 선명하고 귀한 동시에 마음속에 무늬 지는 것이다.

골목에서 놀다가 뛰어와서는 밥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엌 문 앞에 옹크리고 앉아 총알대는 얘기 속에 동심이 있고 동화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동심과 동화를 아는 어머니의 눈에 비쳐질 때 바로 아름다운 동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모름지기 어린이의 세계는 동화의 세계요, 동화는 그 생활의 호흡이며 이런 것을 깊이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성인(成人)이--성인은 아니라도 좋다-- 어린이를 대하여 하는 언어가 곧 동화인 것이다.

3. 동화의 영향(교육적 면)

이상 동화의 뜻과 그 세계에서 서술한 대로, 이렇듯 어린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동화요, 바로 어린이의 생활 호흡이 동화이고 보면 이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이렇게 감수성 예민한 심정에 바로 그들의 생활을 얘기로 들려주어 그 심정 밑바닥에서부터 인격(人格)의 바탕을 쌓게 하는 것이 동화의 역할이다.

1). 상상력 개발

아름다운 것은 진실한 것이다. 그러한 만큼 진실하지 않은 것은, 곧 아름답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진실이란, 그런 딱딱한 생활의 박제(剝製)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무지개는 햇

빛이 물방울에 부딪혀 생겨나는 현상이다’하는 그런 진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하는 그런 진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1+1=2$ 라는 진실이기 전에 $1+1=-2$ 라는 진실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또 그 반대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곧 상상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싶다는 말이다.

티없이 맑게 펼쳐진 푸른 하늘에 보석을 박아 둔 듯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은 어린이들에게는 결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보다도 수십 수백배 거대한 땅덩이가 아니고 바로 눈앞에 환하게 빛나고 있는 형광 전등보다도 가냘프고 앗된 초롱불인 것이다. 그 속에는 별나라 아가들이 초록 침대 위에서 새록새록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선녀의 날개옷이 먹음직한 과실이 주렁주렁 열린 은나무 금나무 가지에 치렁치렁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어린 생각들에게 이것은 아름다운 정서요, 만일 그것이 아름다운 정서라면 진실하고 선한 것이다.

“가만히 가만히
낙엽이 내려지는 가을 밤.
수없이 빛나는 어린 별들
밤하늘 나라 초록 등불.”

이렇게 하늘에 수없이 빛나는 별들은 그들에게는 어린 별들이며 꿈이 서린 하나의 참한 등불인 것이다.

주요섭 선생의 통화 중에(웅월이의 모험) 웅월이가 별나라를 여행했을 때 그곳에는 돈도 모르고, 장사도 모르고, 짜움도 모르고, 어른 되는 것도 없는 세계라는 것을 발견한다. 별나라에 밤이 되면 앗되고 어린 동무들이 손에 손에 횃불을 들고 언덕 위에 올라가 불을 비추고

있다. 그것은 곧 지구에서 바라보는 저녁 하늘 수없이 반짝이는 별 등불이 되는 것이다. 우스운 소리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어린이들의 이상향이다. “피터팬”이라는 얘기도 역시 그런 것이다. 꿈의 섬에 어른 없는 생활, “오래 오래 살 수 있는 길은 나이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든지 어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윤석중 선생의 말씀이다. 세상의 모든 위인들은 그 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어떤 사람이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동심의 진실성과 순진성, 그것이 인생에게 아름답고 귀한 초석이라는 말들이다. 이것이 소유된 모든 사람은 비록 그 연륜이 100순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어른의 아버지는 아이”인줄 아는 젊음, 어림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만치 그 세계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이다.

이러한 어린이의 생각의 세계

땅속엔 땅속엔
누가 있나 봐
손가락으로
쏘옥 올려 미나 봐.

쏘옥 모란꽃 새싹이 나온다.
쏘옥 할미꽃 새싹이 나온다.

땅속엔 땅속엔
누가 있나 봐
커다란 솔을 걸고
물을 끓이나 봐
모락모락 아지랑이
김이 나온다.

비록 땅속일지라도 결코 어둡고 누기지고 답답한 세계가 아니요, 삼라만상의 아름다운 채색자들, 꽃이며 풀이며 나무 순이며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나온 만큼 아름다운 그 모습대로 땅 속에서도 아름답고 귀여운 모습으로 피어 있다가 그 속에 반드시 누가 있어, 혹은 그 꽃이나 풀이 인격으로 살아 있어 이렇게 손가락으로 올려 밀듯 쏘옥 지상으로 구경을 나오는 미화된 세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곧 상상의 산물들이다. 물론 피어난 현상에서 연상(聯想)된 것이라 할지라도 순진한 심경에 부딪히는 상상력, 만일 이런 것들이 어른을 상대로 어른들이 그 생각의 범위가 이것밖에 미치지 못하여 빛어 놓은 것들이라면 답답하고 우스울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바보밖에 더 블려질 이름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 세계에서 이것은 장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귀한 것이다.

곧 상상력이 빛어 놓은 구슬 같은 열매들, 상상력을 철학적 의미로 풀이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어린이의 머릿속을 물구비쳐 누비는 어린이 다운 생각의 샘물이 흘러 빛어지는 생각.

“아저씨, 하늘은 누가 저렇게 썩칠을 할까?”

어린 조카에게는 하늘이 하나의 티없이 맑은 도화지였겠지. 어린이의 어린이다운 상상들, 이것이 바로 통화를 통하여 귀하게 여겨어진다.

여러해 전에, 가정교사를 한 경험이 있다. 초등 학교 4.5학년 어린이다. 그런데 얼마나 말라 버린 감정들인지, 이렇듯 물기 축축한 통화가 그 심령에 말라 버렸다. 상상력, 이런 통화 세계의 상상력이 작용하지를 않는다. 얼마나 따분하고 불행한 어린이인가. 나는 그들의 마음

에 이런 미감, 이런 진실을 심어 주고 싶었다. 그들의 눈에 진주 알보다도 귀한 눈물을 뺏어 주고 싶었다. 이러한 어린이의 세계를, 그 상상의 천지를 깊은 속에서부터 불러 일으켜 눈앞에 꾸미도록 해주고 싶었다.

상상은 발전을 낳는다. “다빈치”의 비행기, 곧 새들을 바라보고 날수 있을 것을 상상했던 꿈은 오늘날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었고, 많은 공상 만화가의 달 로켓트 그림은 오늘날 정말 로켓을 쏘아 올리게 되었으며, “줄 베르느”의 공상 과학 소설은, 오늘날 그것을 실현시켜 놓고 말았다.

이런 만큼 이 상상력의 개발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지만 이 상상이란 경험의 세계를 탈피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기껏해야 오관을 통해 경험한 그 경험들의 유형들인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보면 경험의 폭과 깊이는 성인(成人)의 세계가 얼마나 더 큰가. 이러한 경험들을, 어린이다운 정감으로, 그들의 말과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 심령 속에 수놓아 주면 그 어린 마음들은 넓은 세계, 더 깊은 세계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이다. 그 속에 순화되는 감정이 있고 그 속에 풍성해지는 생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 어린 세계를 깊이 느낀, 바로 어린이의 마음 그대로 가진 성인(成人)들의 어린 이를 위한 언어는 금보다도 귀한 상상의 지혜를 개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통화도, 동시도, 동요도, 그 모두가 이런 어린 마음을 걸쳐 쏟아지고 그것은 곧 어린이들에게 상상과 감동의 세계를 마음껏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은 곧 오래 사는 것이다.”

2). 정서의 순화

정서란, 사물에 부딪혀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 혹은 관념상으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 그 감정들의 실마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정서감은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것, 혹은 추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화란 바로 이러한 정서감을 순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잡스런 여러 감정들을 떼어버리고 그 감정을 계통 있고 순수한 것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런 만큼 동화를 통하여 어린 심령에 정성어린 가르침을 주는 것, 인생 생활에 있어서 관념상으로나 경험상으로나 일어나는 온갖 잡다한 것들, 심령의 잡초를 제해 버리고, 가장 참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그 심령의 물줄기를 인도하는 것이 동화의 또 한 역할인 것이다.

윌리암 제임스는 “심리는 하수와 같다”고 갈파했다. 즉, 처음 실낱같이 흐르는 실개천이 모여 큰 하수가 되는 것처럼, 인생의 심리도 이러한 정서들의 결과가 쌓을 때 그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만큼 정서의 실개천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인도해야 한다. 교육이란 한 마디로 바로 이런 것을 하는 일인 것이 아니겠는가.

195,60년대에 외인 부대 주변에 거주하면서, 나는 오가는 길가에서 외인(外人)부대 주변의 아기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이 군복을 입은 사람과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정서는 “할로 캠”하는 말이다.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기들은 흉물스런 모습들과 찌든 생활고와 병든 사회상을, 그 순수해야 할 마음씨 속에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수놓고 있는 것이다. “너희 집은 뭐하는 집이냐?”라고 물으면 “사람 장사하는데요.”라고 대답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말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

고 멋지게 흔들어 대는 엉덩이춤이 그들의 당연한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의 생활 환경이 그릇되게 인도한 정서의 모습이다. 이런 어린이들에게는 면류관을 단정하게 쓰고 아름답고 착하게 미화된 백설 공주를 동경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고 갑옷에 몸을 감싸고 장한 말 위에 버티고 앉아 악한들을 쳐부수는 씩씩한 왕자의 꿈은 없다. 이들 왕자와 공주는 온갖 참된 힘과 아름다움과 정의와 선의 화신들인 만큼, 그들 심령 속에 이런 힘, 진실, 정의, 선, 아름다움이 심길 여지를 없애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의 세계에서는 동화의 기교와 재미는 차치하고, 그 속에 흐르는 순화된 정서, 곧 의분심, 정당한 적개심 등을 일으켜 동화 중에 숨쉬는 그 동화의 정서가 은연중에 어린이의 마음이 되어 그 성격을 이루어 주는 것이다. 구태여 언어로 표현된 동화가 아니라도 좋다. 날마다 일어나는 생활 동화, 우리의 생활로서의 동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의 생활이 동화 그것인 만큼 어른들의 동화다운 생활이 그들에게 미치는 힘이란 엄청나게 큰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곧 인격의 감화라는 말이다. 톨스토이의 아들 에리가 했다는 말이 기억된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 행동에 강요해 준 일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생각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하게끔 인도되었다.” 참 희한한 일이 아닌가! 어느 날 톨스토이의 어린아이들이 모여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놀이 중에 어떤 사건 하나가 그들만의 비밀로 결정되었다. 생글생글 웃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아들을 불들고 그 귀에 입을 대고 “너희들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런 것이지”하고 말했을 때 그만 아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것을”

이것이 바로 톰스토이가 아들을 교육하는 교육이었는 바 그는 그 아이들 속에 흐르는 그들의 생활 호흡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화의 호흡이요, 이것이 그들의 오관에 부딪힐 때 그들의 정서가 순화되고 올바르게 인도되는 것이다. 곧 동화는 어린이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아울러 참되게 개발시킨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컴퓨터 시대에 사는 어린이들은 낭만적 정서를 잃고 있다. 메마른 사이버 오락물들이 흥수를 이루고 있어서 백설 공주나 어린 왕자, 소공녀, 비밀의 화원, 알프스의 소녀 등등 고전적인 이야기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날마다 컴퓨터 앞에서 감정이 없는 기계를 닮아 가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비정(非情)스러워 진다. 무엇이든지 기계적 힘과 물질 만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세상이 삭막하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더더욱 마음을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동화의 세계를 아이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구김살 없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동화는 이 일을 이루는데 크게 조력할 것이다.

3). 인격의 기반을 닦는다.

동화를 즐기고 사랑하는 어린이로서 그 성질이 영악스런 어린이가 드물고 동화를 사랑하는 어른으로 그 마음이 심술궂고 고약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곧 동화는 어질고 부드럽고 다사롭다는 말이다. 이 동화가 밀거름이 된 인격은 결코 악인일 수가 없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미국의 그 범죄자는 확실히

동화가 그의 인격을 그렇게 만들었다. 고로 동화의 영향을 생각할 때 아무런 얘기나 동화라고 하여 다루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동화가 정서를 순화시키는 만큼 이 동화가 장래 인격의 기반을 닦는다는 것은 자연스런 이론의 흐름이다. 한 없이 아름답고 고운 동화의 세계가 가슴 한복판에 도사리고 있는 인격(人格)은 사물을 느끼는 각도가 순화되어 민감하다. 어른이 되고 난 후라도 풀잎파리 마다 맷 혀지는 이슬과, 가을 반짝여 아침을 맞는 서리에서 풍요 스런 생활을 빛내고 삭막해진 인정 속에 그 심령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움을 불러내는 것이다.

물론 인격의 기반이 동화만으로 닦여진다는 말은 아니다.

동화는 특히 아가, 엄마의 아가를 위한 엣된 언어들이 다. 심리학상으로 그 사람됨의 기틀이 닦이는 시기가 4세-7세 사이라고 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라는 속담은 이것을 응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 나이의 어린이들은 동화와 꿈속의 어린이다. 정말로 꿈을 먹고사는지 모른다. 이 동안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취급되어지는 온갖 것들은 뇌리 깊이 판 박혀져 그 감화를 결코 쉽게 지워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아직도 높은 언어 생활에 익숙해지지 못한 시절 주로 그 귀와 마음에 매력을 끄는 것은 동화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동화가 장래 인격의 기반에 기여하는 바 영향력이라는 것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나타니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的 주인공, 그가 결국 그 큰 바위 얼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의 화신(化身)인 큰 바위 얼굴의 동화를 그 어린 심령 깊숙이 간직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동화는 그 듣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정당하고 아름다운 상상의 날개를 달아 주고 모든 정서를 순화시키며, 그런 만큼 장래 인격의 참된 정서를 소유하는 인격적 기반을 닦아주는 것은 이상한 일일 수가 없다.

4. 동화의 사명

이상에 말해 온 내력에서 동화의 사명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보겠으나 다시 이 제목만 가지고 다루어 보고자 한다.

세상에 유형 무형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 존재의 목적성 이것을 사명이라 해 두자. 동화도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와 그 가치가 이상과 같이 논의되었으니 동화로서의 목적성 곧 사명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1). 본질적 사명

동화의 사상적 가치가 곧 사명은 아니다. 사명이 가치일 수는 있겠으나 가치가 곧 사명일 수는 없다.

소설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읽는 이유에 구구한 설명들을 늘어놓으려고 하고 있으나 솔직히 재미있으니까 읽는 것이 아니겠는가? 소설에 재미가 빠져 버리고 나면 그것은 조미(調味) 되지 않은 요리 같아 먹혀지지 않는다. 아무리 영양가가 높고 어떻고 해도 그것은 먹은 후에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보면 우선 먹힐 수 있는 요리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소설 속에 아무리 귀한 무엇이 있고 읽으므로 한없이 귀한 것들을 배운들, 당장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어떻던 읽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재미이다. 동화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재미가 있어야 한다. 아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는 바로 재미 그 자체이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심히 중후하게 여겨진 가치가 재미라는 사탕으로 그만 평가 절하되는 감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통화가 지니는 본질적 사명은 재미있게, 재미 중에서 정서를 함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화 속에 재미가 빠지면 통화로서의 근본 가치를 상실하는 셈이 된다.

둥근 식탁에 밥이 구수하게 김을 풍기고 조촐한 반찬들이 잘도 차려져 있는 저녁 식탁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올망졸망 어린 자녀들이 둘러앉아 감사를 하고 밥을 먹으려 한다. 초등 학교 6학년 4학년 그리고 4살 짜리 꼬마, 중학생이 된 누나와 2학년 짜리 막내 딸,

“보자, 철수, 너는 밥은 왜 먹지?” 아버지는 6학년 아들놈에게 빙그레 웃으며 질문을 던진다. 철수는 멈칫하고 아버지가 묻는 의도를 짐치기 시작한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것을 물으실까?> 한참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혼자 미소하며 아버지의 묻는 뜻을 알기라도 했다는 듯,

“몸에 영양을 취하고 그래서 건강하여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장하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며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오냐, 그래 됐다.”

“그럼, 인수는?” 아버지는 4학년 짜리에게 묻는다.

“장래 좋은 사람되려고요.”

그리고는 씩 웃으며 찬을 입으로 가져간다.

이놈은 형에게 물었을 때 저 혼자 형과 비슷한 판단을 하고는, 형의 대답을 참고하여 미리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음 그래 좋군.”

“그럼 우리 중학생은?”

아버지는 질문의 방향을 종학교 2학년인 맏딸에게 돌렸다.

“아버지는 싱겁게 그런걸 물어요.” 곱게 눈을 흘기며 딸은 셀쭉 웃어 버린다.

“허허, 참 싱겁긴. 자, 그럼 우리 명수는 어째서 밥 먹지?”

4살 박이 명수에게 아버지는 익살스럽게 묻는다.

명수는 고개를 발딱 제치고 생글생글 웃으며 입에 문 손가락을 빼내고,

“난 배고파서 먹는다.”

“오, 그래, 배고파 먹어!” 아버지는 만족한 얼굴을 하시고 명수의 등을 톡톡 두드려 주신다.

“우리 명수 대답이 제일 옳은 대답이다.”

별씨 아버지의 질문하시는 의도를 캐어 본다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 싱겁다고 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별씨 대답하는 자기 입장의 정당성부터 방패로 마련해 두는 교활성이 보이지 않는가? 동심이 사그러져가는 과정이라 할까? 정말이지, 밥은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것이 아닐까? 얼마나 꾸밈없고 순진한 마음씨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했는지 모른다.

동화 속에 재미란 바로 이런 순수한 것이다. 순진성이 빠져버리면 별씨 동심에서 낙제된다. 그처럼 이런 재미가 빠져 버리면 동화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다 해도 좋으리라.

이 재미라는 것 속에는 온갖 좋은 것이 다 들어 있다. 그 온갖 좋은 것을 하나로 뭉쳐 둔 것이 재미다. 동화를 듣는 것은 재미를 듣는 것이요 동화를 읽는 것은 재미

를 읽는 것이다. 그래서 재미 그것 속에 교훈이 깃들여야 한다. 동화의 본질적 사명은 바로 이 재미 속에 정서를 함양하는 것이다.

2). 부수적 사명

그러면 동화는 재미 그것으로 그쳐 버려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재미 속에 정서를 함양 순화할 수 있는 요소가 빠져버리면, 이것 역시 동화에 실격이다. 배고파 먹는 밥처럼, 재미있어 듣는 동화는, 밥을 먹은 후에 몸에 영양이 되고 그래서 건강하고 자라서 좋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살게 하는 것처럼 동화는 그 재미를 통하여 듣는 마음속에 정서를 함양하고 순화시키며 올바른 도덕 정신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만일 동화를 통하여 정서가 그릇 인도된다든지 올바르지 못한 정신이 배양된다면 그것은 동화로써의 구실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차라리 동화가 아닌지도 모른다.

오늘날 시중에 범람하는 많은 어린이 서적 중에는 차라리 없으면 좋을 악의 씨앗들이 너무 많다. 사람은 본래부터 그릇 인도되기 쉽게 되어 있다. 성악설을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곧 인류의 시조가 그 가진바 욕망의 물줄기를 그릇 인도하고 난 후부터 인간의 심리의 하류(河流)는 굽어 흐르는(曲流) 것이 쉽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 만치 이 상태를 통감하고 아직도 그 하류(河流)가 실개천일 어린 시절에 그 양심에 올바로 흐르는 정서의 하류를 닦아 인격의 하천(河川)이 이루어질 때는 순화된 정서와 중후한 인격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동화의 부차적 사명이다. 결국 이 모든 교육적 사명들이 재미라는 그릇 속에서 섭취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두드러지게 목적 의식을 나타내어 설화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귀를 쉽게 피로하게 할 뿐 아니라, 딱딱한 수신(修身) 교과서를 대하듯 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동화의 중간에나 끝에 가서 교훈적 언사를 쓰는 것도 동화로서는 어색하다. 동화는 동화에서 시작하여 동화에서 끝나야 하는 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로 엮어 놓은 구슬 꾸러미가 되어야 하며, 그 구슬 알마다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바로 정(情)이요 도덕이요 교육이요 종교요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다.

동화는 이렇게 본질적 사명 속에 귀한 진주 알들이 담겨 있는 부수적 사명을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

5. 동화의 종류

그럼 이렇게 어린이 세계에 귀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동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종류야 어떠하던 간에 그것이 어린이 앞에 펼쳐질 때는 바로 동화 그것으로 화신(化身)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럼 동화로 화신(化身)될 수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기로 한다.

1) 우화

우화란, 주로 동, 식물을 의인화하여 꾸며진, 교훈을 목적으로 한 이야기다. 우화에는 모든 등장하는 생물이다 인격화되어 있다.

우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솝의 우화가 있다.

“금언과 우화를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입장에 적당히 사용하면, 우리의 언어의 효과를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 고테가 이런 뜻의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이와 같이 우화는 그 교훈적 가치를 금언과 비교하고 있다. 우리들이 가진 언어가 똑바로 우리들의 사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 그 사상의 용이하고 확실한 전달을 위해서 우화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화는 비유와 통하는 데가 있다. 또 사상을 전달해야 할 상대자가 단도직입적인 말을 하기에 부적당한 대상일 때 우화를 사용한다. 유명한 설총의 화왕계(花王戒) 같은 것은 이런 류에 속한다. 또 어떤 상대자의 가소로운 소행을 감정이 상하지 않게 책망하여 그 행위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우화를 사용한다. 이럴 때 나타나는 효과는 심히 빠르고 적확(的確)하다.

학교 시절의 일이다. 급우들 몇이 들러앉아 우리 나라의 그리 좋지 못한 면들이 화제(話題)로 올라 한참 시시비비하고 있는데, 한 급우가 “우리 나라를 그만 미국의 한 주로 편입하고 우리 모두 미국 사람이 되어 버리지 그만.” 하는 말을 했다.

나는 유쾌하지 않았다. 그 말을 분별없이 토한 아이는 역시 분별이 적은 행동을 하는 아이다. 나는 얼른 우화가 생각이 났다. 마해총 선생의 “토끼 삼형제”라는 얘기이다. 그 이야기는 요약하면 이렇다.

평화롭게 사는 토끼 나라에 끼끼, 까까, 꾱꼬 삼형제가 바다가에 나갔다가 물에 빠져 죽게된 원숭이 나라의 시시, 샤샤, 쇼쇼 삼형제를 구하여 준 것이 동티가되어 원숭이 나라가 토끼 나라를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토끼들을 원숭이가 되게 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하다가, 뚱쇠 나라와 전쟁을 걸어서 마침내 뚱쇠와 센히리 연합군에게 원숭이 나라는 망하고 토끼는 해방이 된다. 그러나 토끼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토끼 형제들은 각각 그들을 원숭이의 손에서 해방시켜 준 “뚱쇠”를 따르는 뚱

쇠파와 “센히리”를 따르는 센히리파가 생겨서 그들에게
가서 토끼들을 그들처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장
면이 있다. 그때 뚉쇠와 센히리는, 토끼는 토끼이지 결
코 뚉쇠도 센히리도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시침을 떼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재미있게 했
다. 둘러앉은 굽우들이 재빨리 내 의도를 알아차리고 빙
그레 웃었다.

“흥, 그게 뭐야?”

‘우리 모두가 미국 사람이 되어 버리지’라고 말한 아
이가 이렇게 중얼거렸다.

“뭔지 생각해 보렴.” 나는 이런 반응을 보였으나 그가
마음 속에 어떤 뜨끔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화의 효과는 이런데 근본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
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의 경주는 그것을 읽는 아이
와 듣는 아이가, 그것이 주려고 하는 근본 의도를 깨닫
지 못하고 그냥 읽기만 한다 하더라도 어느 때에 “아하,
그렇구나!”하고 그 뜻이 또렷이 머리 속에 떠오를 때가
온다. 구태여 그 이야기 끝에 “우리는 토끼처럼 자만하
면 안되고 거북처럼 꾸준해야 한다”는 사족을 달 필요
가 없다. 그런 사족을 붙이면 이것은 우화적 훈화이지
우화 동화는 아니다. 결국 이 우화가 어린이를 상대할
때는 동화화(童話化)한 우화가 되어야 한다.

위에서 든 예는 동화화한 얘기로써의 우화가 아니고
성인 사회(成人社會)에서의 우화를 설명한 셈이지만, 이
우화를 동화로써 요리해야만 비로소 어린이 앞에서 펼
쳐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화를 다루는 분들은 알아
들 필요가 있다. 마해송 선생의 토끼 삼형제는 바로 동
화가 된 우화이지만 어떤 우화는 반드시 동화가 되도록
요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린이 동화 세계는 그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물이 바로 하나의 인격으로 승화되어 그들 앞에 있는 만큼 우화가 어린이들에게 매력을 주는 힘은 크다. 이것을 동화의 사명에 맞도록 빛어 보면 어린이를 위한 동화 우화가 될 것이다.

2). 신화(神話)

신화란, 신들 세계의 얘기, 또는 신들이 인간과 관계하는 얘기를 통털어 말하는 것이다. 희랍 신화는 너무나 유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 신화는 대부분이 황당 무계한 것으로 이 신화를 만들어 낸 고대 민족들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잡다했던가를 나타내 주는 학적인 연구 외에 동화로써의 가치를 가지기는 꽉 힘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신화 중에서 어린 심령에 순수 미감(美感)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결코 적지 않지만, 차라리 요정이 나오고 별나라 어린이가 어떻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상의 소산이라 보겠거니와, 신화는 지금 지어지는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역사적 공간과 시간성 위에 있었던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경향이므로 경건과 순수하고 참된 성경적 정서를 일으키는데 혼란을 초래한다면 이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과 영웅들이 정말 위대한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신화와 영웅을 창작해 낸 사람의 머리가 더 위대한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며 동화화(童話化)된 신화로써의 가치를 잘 고려한 후에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신화로 단군 신화, 김수로왕의 이야기, 박혁거세, 금와왕, 고주몽, 김알지, 석탈해 등등 온갖 신화가 있는 바 이것은 옛날 토테미즘의 사상 속에 생활

한 인생들이 스스로 위대하고픈 심정에서 사람을 닦 새끼, 말 새끼, 백로 새끼 등으로 저락시켜버린 난센스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진화론과 맥을 통하는 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 글을 쓰는 나로써는 이런 신화들을 어린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성인(成人)의 노파심이라고 탓해도 할 수 없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상징성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기가 쉽다. 물론 성인(成人)이 된 후에 그것이 황당 무계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저 한 번 고소(苦笑)하면서 그 상징하는 의미의 진실을 되새기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좋은 면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강한 인상으로 어린 심령에 새겨지면 견전한 사상을 형성하는데, 또 성경적 신앙 사상을 확립하는 데 장애를 가져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와 민족 발생의 교과서적 교육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것이 동화로 쓰여질 때를 두고 한 말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3) 전설, 민화

전해 내려오는 얘기들이다. 옛말이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흔히 민화라고 말하는 것들도 전설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세히 구분하면 다른 분야일지 모르나 여기서는 같이 보기로 한다.

삼년 고개, 혹은 도깨비 얘기 등등, 오히려 신화보다는 퀴할 것들이 더 있을지는 모른다. 전설 중에 왕왕 정의의 위인들이 나오는 만큼 그 인격을 훔모하는 정신을 일으키는 것은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전설은 그 대부분이 권선징악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동화의 그릇 속에 담아, 올바로 그 정서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은 동화자의 역량이다.

4) 전기(傳記)

인물의 일대기들이다.

어린이들이 즐겨 할 수 있는 장면들을 동화로 요리하면 좋다. 워싱턴의 어릴 때 벚꽃 나무를 자른 얘기는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인가. 결국 그러한 어릴 때의 마음가짐의 결과가 워싱턴이라는 위인을 열매 떻게 했다는 감화. 결코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좋은 씨앗을 마음에 뿌리고 그것을 잘 가꾸면 나쁜 나무가 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단 동화로 요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는 이치이다.

5) 생활 동화

이것은 어린이들의 생활에서 직접 취재한 재료들로 이루어진 동화를 말한다. 앞서 말한 “넉점 반” 동시를 하나의 동화로 펼쳐 놓으면 아ガ의 생활이 동화화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많은 창작 동화가 여기에 속할 수 있는 바, 어린이들의 생활을 깊이 통찰한 어린이들을 위한 어른의 어린이다운 언어들이다. 물론 동화가 가상적, 공상적 얘기로 짜여지는 것이 많지만 요즘은 사실(寫實) 동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하겠다.

6) 종교 동화- 성경 동화

동화라고 말했으니 이것은 동화인데 그것이 종교상의 제반 문제를 어린이들에게 합당하도록, 동화적 제반 요소에 맞도록 잘 정리하여 쓰거나, 또 그것을 구연하는 것을 종교 동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어떤 종교의 이야기라도 종교 동화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많은 전설들은 불교적인 것이 많고 때로는 불교의 교리를 아주 적절하게 이야기로 꾸민 것들도 있다. 이런 것은 어려운 불경을 철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불교를 이해하게 하고 친근하게 한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종교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그 내용의 전부가 성경에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을 동화적 제반 요소에 맞도록 잘 정리하여 쓰거나 어린이에게 직접 구연하는 것이 성경 동화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교훈을 이야기로 전달하는 일에 명수였다.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으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비유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이야기로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고 이해하기 쉽게 하셨으며 친근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우리도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거리에서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복음을 쉽게 하여 어린이도 능히 알 수 있고 친근하게 되도록 하여 전달하면 얼마나 보람있겠는가! 복음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려고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가 기독교의 종교 동화라고 하겠다.

어린이 앞에서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은 아주 요긴한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쉽게 하고 그것이 평생 잊어버리지지 않는 지식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성경의 내용을

동화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에는 반드시 정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흔히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20대 청년처럼 묘사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집 떠날 때 야곱의 나이를 계산하면 70세가 된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나이는 말하지 않더라도 20대나 10대의 청소년처럼 묘사해서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못된다.

이 외에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전달 못하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는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전하는 것,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전하는 것 등, 조심해야 할 것이 참 많다.

그래서 성경 동화를 할 때는 성경 내용에 충실해야 하며, 그렇기 위하여 성경을 바르게 풀이한 좋은 책들을 참고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자라는 어린이에게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의 깊게 성경 동화를 자주 들려주는 일은 아주 요긴한 것이다.

7) 목적 동화

목적 동화는 그 동화가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동화를 말한다.

황광은 선생의 ‘날아가는 새구두’, 기독교 서화의 ‘교육 동화집’ 등은 바로 목적 동화들이다. 권선징악의 목적이 푸렸한 그것을 테마로 하여 쓰여진 동화들이다.

8) 순수 동화

동화 속에 목적을 일부러 가지고 있지 않는 동화, 순

전히 아동 심리 상태 혹은 생활 태도를 그린 것들, 혹은 그 정서를 펼쳐 놓은 것들, 안데르센의 '그림 없는 그림 책' 같은 것이 순수 동화 중에 들 수 있지 않을까.

동화로써의 근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동화라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안다.

6. 동화의 분류

앞에서 말한 그런 종류의 동화들을 그 발표되는 형태상으로 분류해 보자.

1) 구연 동화

구연(口演)이란 입으로 연극을 연출한다는 말인데 어떤 종류의 동화이든지 이것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달될 때는 곧 구연 동화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보면 동화의 구연법이라고 해야지 구연 동화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어린이들의 머리에 무리가 없도록 재미있게 설명되어지는 동화를 편의상 구연 동화라고 분류해서 잘못될 것은 없다.

이 글이 후반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동화의 구연 법이다.

2) 기록 동화(문예 동화)

동화를 문학 작품으로써의 가치를 주어, 귀로 듣기보다 눈으로 읽어 그 짜임새와 읽는 재미를 위주로 한 것이라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화는 읽는 동화이지 듣는 동화이기는 어렵다. 임인수 선생의 '눈이 큰 아이'는 이런 류에 속한다고 할까. 이러한 문예 동화를 직접 어린이 앞에서 펼치려 할 때 구연자는 구연에 맞도록 멋지게 요리해야 한다.

그런 만큼 동화의 구연자는 동화를 새로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음악에 있어서 연주자의 역할에 해당되는 것이다.

7. 동화의 진실

상상력의 개발에서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듯 하다가 그만두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와 역사의 차이점은 바로 이 동화에도 적용될 것이다. “역사는 있었던 사건의 기록이요 시는 있을 수 있는 사건의 기록이다.”라는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란 항상 있는 일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또한 항상 없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있을 수 있는 일의 진실은, 인간이 있고 생활이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있는 것이다. 거짓말로써의 참말, 이것이 동화이다. 말하자면 꼭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글로, 말로 재 표현한다는 것은 싱거운 일이니 만큼,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포함하고 있는) 진실이 있을 수 있는 일일 때 그것 자체는 진실한 것으로 승화한다.

심미 주의 작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는 젊은 제자 지드가 찾아 왔을 때 블록 이런 말을 건넸다.

“오늘 무엇을 봤느냐?”

지드는 선생의 질문을 따라, 그날의 자기 생활과 견문을 얘기했을 때, 와일드는

“너는 참 얘기할 줄을 모르는구나.”

고 전제하고 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다.

어느 공장에 입담 있고 얘기 잘하는 직공이 있었는데 쉬는 시간이면 온 공장 직공들이 그에게 얘기를 청했다. 그때마다, 그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날도 역시 그는 얘기를 시작했다.

“아, 내가 바닷가에 나갔더니, 넘실대는 푸른 물결 위에 금빛 머리채를 늘인 인어 아가씨들이 뼈를 지어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있더군. 그래서 한참을 구경하다, 그 근처 숲 속을 거닐었더니 아, 글쎄, 그곳에는 숲의 요정들이 초록 면사포 같은 드레스를 걸치고 슬래잡기를 하고 있지 않겠나.”

그는 입담 좋게 듣는 사람이 흠뻑 빠지도록 재미있게 얘기를 했다. 이튿날 그는 거리에 나가 바닷가에 나갔을 때 정말 인어를 보았고, 숲에서 정말 요정의 노는 모습을 보았다. 그날 다시 직공들이 얘기를 청했을 때

“오늘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소.”

하고 그는 자리를 피해 버렸다고 한다. 바로 이런 것이 동화의 진실이라는 것이다.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실이요 동화가 된다는 말이다.

바닷가에서 한 소년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점심도 짚은 채 이제는 해가 서산을 뉘엿뉘엿 넘어가는 데, 소년의 그릇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들어 있지 않았다. 별씨 이틀째, 이렇게 고기를 낚지 못하면 어머니의 생명은 견디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심히 앓고 계시다. 그러나 가난한 형편은 약첩을 올리지 못한다. 소년은 결심하고 낚싯대를 메고 바닷가로 나왔으나 어제도 오늘도 고기는 용케도 낚시를 피해 버린다. 맥이 빠진 소년은 낚싯대를 거두면서 힘없는 얼굴에 눈물을 무너 지우고 있었다.

“아가, 너 왜 그러지?”

바로 등뒤에서 들리는 부드러운 음성, 흄칫 놀라며 뒤를 돌아본 소년의 눈앞엔, 아, 바로 임금님이 웃고 계시지

않는가.

“아, 폐하께옵서.”

소년은 예모 있게 예를 올리고 읍한 체 서 있었다.

“무슨 연고로 올고 있느냐?”

“예, 폐하, 어머니께서 심히 편찮으십니다. 집에는 약을 사 올릴 한푼의 돈도 없어서 제가 고기를 낚으러 나왔사오나 효심이 없고 정성이 없어 별씨 이틀째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답답하고 안타까워 읍니다.”

“오 그래, 기특하구나. 그럼 내일, 네가 고기를 낚으러 또 나와서, 무엇이던지 낚시에 걸려 오르는 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 무게만큼 금화를 주마.”

“감사합니다, 임금님.”

소년은 부푼 기대를 가지고 돋는 해를 벗삼아 바닷가에 나와 앉아 낚시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러나, 한낮이 기울도록 송사리 하나 걸려들지를 않았다. 소년은 초조했다. 무엇이라도 좋다. 하다못해 쪽은 낙엽인들 어떠랴. 그러나 해는 사정이 없었다. 어느덧 서산을 향해 뉘엿뉘엿 그 장한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

‘아, 이젠 다 틀렸구나.’

소년은 고개를 푹 숙였다. 눈물이 펑 돌았다.

아! 바로 그때다. 소년의 손끝에 가벼우나 어떤 무게가 올라앉는 것을 느낄 때, 소년은 조심조심 낚싯줄을 잡아 당겼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쪽은 낙엽 한 잎이었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수확이었다. 조심조심 낚시 끝에서 쪽은 낙엽을 떼어 바구니에 넣으려는 찰나,

“허허허, 그건 무엇에 쓰려노?”

깰깰한 목소리로 비웃는 말이 들려 왔다. 돌아보니 어떤 신사가 바로 옆에 서서 어처구니없다는 듯 소년을 내려

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세요. 저는 임금님과 약속이 있어서 그렇니다. 무엇이든지 낚시 끝에 매어 달려 올라오는 것을 가져오면 그 무게만큼 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오 그래. 그러면 묵직한 쪽은 나무토막이라도 몇 개 주워 담아 가지 그러나.”

신사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순간 소년은 얼굴이 헐쓱해지더니 다시 시뻘개졌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차라리 돈을 못 얻었으면 못 얻었지 어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소년의 정기 흐르는 눈매를 흠칫 놀라 바라보던 신사는 부끄러운 듯 어디로 없어지고 말았다.

소년은 정성스레 나뭇잎을 들고 왕궁을 찾아갔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어전에 나와 미소 가득한 얼굴로 소년을 보며 물었다.

“그래, 무엇이 걸렸더나?”

“예, 쪽은 나무 일 하나입니다.”

소년은 부끄러운 듯 낙엽을 끄집어내어 들어 올렸다. 순간 모든 신하들의 입이 일제히 웃음 합창을 시작했다. 소년의 얼굴은 노을 보다 더 붉어졌다. 그러나 임금님은 웃음을 멈추게 하시고 천칭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한 편 접시에 나뭇잎을 얹고 다른 편에 금화를 얹었다. 까짓 비교할 가치도 없는 것, 모든 신하의 눈은 비웃고 있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다. 나뭇잎은 까딱 하지도 않는다. 어전이 갑자기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짤랑’ 또 한 일. 그래도 나뭇잎은 꼼짝을 않는다.

‘짤랑’ 세 일.

이제는 신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전이 응성

음성 수선스럽다.

‘짤랑’

‘짤랑’

‘짤랑’

‘짤랑’

‘짤랑....’



열 잎 금화가 포개어졌을 때 나뭇잎은 겨우 균형을 잡았다.

“와아---”

신하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소년의 놀라움이 야!! 그 때 무거운 음성이 어전을 울렸다.

“조용하시오. 이것은 나뭇잎의 무게가 아니라 저 소년의 효심과 정직의 무게임이 틀림없소.”

소년이 부끄러운 듯 머리를 들었을 때, 아! 거기에는 바로 조금 전에 나무토막을 집어넣으라는 그 신사의 얼굴이 임금님과 함께 웃고 있지 않는가?

지루하지만 얘기를 하나 썼다. 과연 낙옆의 무게가 금화 열 달에 맞설까? 거짓말이다. 언젠가 어린이 교사 강습회를 지도하며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금방 그 내용은 좋으나 결국 끝머리는 거짓말이 아니냐는 반문이 들어왔다. 분명히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다. 어찌 금화 열달 따위로 정직과 효심을 계산할 수 있을까. 어린이가 어린이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코 그곳에서 거짓을 발견치 않는다. 그 소년의 영웅적 정직성이 바로 그들의 정서 속에 함양되는 것이다.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이를 혜아리지 말자. 어린이로 하여금 어른의 딱딱한 이해와 사고 속에 결단코 박제(剝製)를 만들지 말자.

이런 곳에 동화의 진실이 있다.

8. 동화와 훈화와 아동 설교

1) 어떤 사람들은 동화를 훈화로 오해하고 있다.

훈화와 동화를 비유한다면 일(작업)과 놀이(오락)에 비길 수 있다.

일은 그 과정이 고되더라도 이루어질 결과를 생각하고 꾸준히 감당해 가며, 그 이루어진 결과에서 만족한 보람을 찾고 즐거워한다. 훈화의 성격이 이와 비슷한 것이다.

훈화의 목적은 어떤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것이다. 때때로 훈화에는 책망의 요소가 포함될 수도 있고, 권면의 요소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의 도덕성을 직접적으로 계발하고 함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훈화는 교훈이 그 주된 사명이며, 이 교훈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재미를 섞어서 진행시키는 것이다. 재미가 전혀 없어도 훈화는 성립이 된다. 어쨌든 그 결과로 사람이 목적하는 교훈을 받고 개선의 각오를 시키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화는 놀이와 같다. 놀이는 결과야 어떠하든지 그 과정이 재미있고 만족스러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놀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결과까지도 좋으면 놀이의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된다.

동화는 재미있어야 한다. 그 재미 속에 교훈이 녹아 있고 그 진행되는 이야기 자체가 곧 하나의 교훈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재료와 진행되는 재미있는 사건이 곧 어린이의 생활이요 인격이 되게 되고, 그러므로 어린이가 그 진행 과정을 그들의 생활에 그대로 흡내내어도

좋을 인격을 형성하는 결과를 이루게 하는 것이 동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동화를 구연하는 자는 그 사용하는 언어와 제스처, 전개되는 이야기 사건과 그 재료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어린이 세계의 말이라고 험한 말을 함부로 쓰면 어린이는 당장 그것을 모방하고 그 진행되는 험한 사건을 생활하려고 하는 죄악적 경향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야기가 약간 빛나갔으나, 아무튼 동화는 동화로써, 훈화는 훈화로써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동화의 주제를 끝머리에 더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 동화와 훈화는 그 사명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않다. 어디까지나 동화는 동화로써 시종 해야 하고 훈화는 훈화로써 시종 해야 한다. 그럴 때 거기서 각각 그것들의 값이 섞이지 않고 빛나게 될 것이다.

2) 아동 설교

아동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법에 맞게 하는 구연이다.

그러므로 아동 설교는 반드시 그 근거를 성경에 두어야 한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설교에는 예수님이나 그의 십자가가 빠지면 설교의 중심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라고 말할 수 없다. 성경의 내용을 어린이들에게 동화로 들려준다고 그것이 어린이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설교는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조직은 한가지 주제로 확실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결

론이 확실하고 적용이 뚜렷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하는 위엄과 권위로 나타나야 한다. 적당한 몸짓은 있어야 하겠지만 연극적 기교는 삼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어린이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잘 조정하여 동화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은 재미있게 전달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설교는 이상의 요소가 전체를 지배하여야 한다. 즉 설교는 어디까지나 설교이지 동화는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때때로 설교를 한다면서 동화적 재미에만 치우치는 것을 볼 때, 고소(苦笑)를 금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설교는 설교로, 동화는 동화로, 훈화는 훈화로 잘 구분하여 전달하는 것은 경험과 훈련에 힘입는 바가 클 것이다. 모든 구연자(口演者)들이 잘 훈련하여 이런 일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II. 동화하는 법

병어리가 아니면 다 말을 할 줄 안다. (병어리도 음성(音聲) 언어(言語)는 못하지만 수화(手話)로 말을 한다). 말은 우리들의 의사 또는 사상의 전달 수단이다. 헬렌 켈러가 했다는 말이 기억난다.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물었다고 한다.

“선생님, 장님과 귀머거리와 병어리 중에 어느 것이 제일 답답합니까? 아마 못 보는 것 이겠지요?”

그러나 여사의 입장은 우리 성한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다.

“아니요, 말 못하는 것이 가장 답답합니다.”

생각해 보라. 말이 없는 세계를! 그곳에는 사상(思想)이 없다. 사상이 없는 곳에는 생활이 없다. 얼마나 무미하고 단조롭고 재미없는 세계일까? 인간의 모든 감정과 정서가 말을 통하여 표현되고 전달된다. 말로 남의 심금을 울려 공감 공명을 하도록 말 잘하는 사람을 응변가라 하는가! 이 응변에는 “제스チャー(gesture)”가 따른다. 미비한 말을 돋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그래서 철학자 휘-테는 “제스チャー가 심한 것은 실은 응변에 졸(拙)한 표다”라고 지적했다. 하기사 경우를 따라서는 언어를 초월한 감정의 표현이 동작으로 나타날 때가 있긴 하다. 좌우간 우리 주변에 모든 상황은 언어를 통하여 체계화하고 개념이 살아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중요한 언어를 누구든지 사람이면 다 할 줄 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 법에 대하여 연구하려 들지 않는다. 그것은 응변가들이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

절한 말을 적재적소에 구사(驅使)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 인해 일어나는 분쟁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라. 그래서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정반에 금사과니라”(잠25:11)고 가르친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말을 좀더 조리 있게 하는 법을 익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 입에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말은 어떤 뜻으로는 다만 소리 이상의 것이 아닐는지 모른다. 전혀 말이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장(章)에서는 말하는 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말하는 법 중에도 어린이들 앞에서 동화 말하는 법을 말하려고 한다.

앞에 말한 동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심령에 하나의 지식으로 간직해야 할 것이라면 이제 쓰는 것은 그 지식을 실지로 적용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지식은 머리로 습득하는 것이라면 기술은 몸으로 습득 연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악에 대한 이론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악보를 보면 이론적으로 음명(音名), 계명(階名) 화성 등을 훤히 알고 그 구성을 낱낱이 설명할 수 있어도 그가 실제로 노래를 해보지 않았다면 그 음정을 목소리로 나타낼 수는 없을 것이다. 피아노나 악기를 연습하지 않았다면 결코 연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동화를 말하는 것 곧 구연(口演)은 기술이다. 기술인 만큼 피나는 연습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하는 연습도 전혀 연습 안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지침에 따라 하는 연습보다는 기술을 소유하는데 그 진보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부정확할 것이다. 피아노를 마구 배우는 것보다 교본을 따라 순서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정당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 아닌가. 동화하는 법

도 그와 같은 것이다. 모든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반드시 연습이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동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말해 보기로 하자.

1. 동화하려 나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일이다. 즉 준비 공작이 제일 긴요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 일의 성패는 준비의 성실 불성실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은 진실하다. 사람들은 흔히 “있는 솜씨에 뭘 그리 비싸게 구시오”라는 말을 한다. 이것은 사실 무리한 말이다. 모험을 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모험이라도 아주 위험한 모험이다. 경우에 따라서 미리 부탁한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시간에 그 순서를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대신해야 할 경우가 있긴 하다. 그러나 동화하는 사람으로서는 준비 없이 앞에 나서는 일은 아주 삼가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아니면 언제든지 대신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일을 하면 가장 좋은 일이기는 할 것이다. 과거에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준비 없이 설교 단에 서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간이 큰 사람이라고 한 말이다.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동화를 하는 사람은 동화하는 자리에 서기 전에, 그 자리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준비를 갖춘 후에 동화하려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나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제 그것을 적

어 보기로 하자. 이것은 특별히 어린이 앞에 통화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생각된다.

1). 통화 잘하는 선배들의 통화하는 것을 견학할 것.

이것은 필자가 가장 권하고 싶은 준비 방법이다. 백문이 불여 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듯이 뭐니 뭐니 해도 통화의 모든 것을 잘 습득하여 어린이들 앞에서 멋지게 통화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는 것이 내가 통화를 잘 할 수 있는 철경(지름길)인 것이다.

무엇이든지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모방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것을 아류(亞流)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편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들의 경험 세계 밖을 나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의 사상이 아류 아닌 것이 있겠는가? 이런 아류에서 시작하여 연습을 거듭하는 동안 하나의 자기 세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나 책에서 배우는 것이나 모두 아류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통화를 하는데도 잘하는 선배의 통화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모방해 보는 것은 통화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자기 발전을 위하여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훈련이 된다.

필자는 통화를 잘 하는 어떤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다. 그 목사님께서 여름 어린이 성경 학교 교사 강습회를 위하여 강의하실 때 필자는 수강생의 한 사람으로 반드시 참석하였다. 그때 필자는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 앞에서 그들의 정신을 함빡 빼앗도록 아기자기하고 자

지러지도록 재미있게 통화를 엮어 나아가나 하는 이 한 생각으로 그 목사님의 음성, 얼굴 표정, 몸짓, 그 어느 것 하나 하나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린이 앞에 통화하기 위하여 섰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모양을 그대로, 심지어 통화 내용까지 흉내를 내어 보았다. 그렇게 해 보면 내가 그 목사님을 더욱 근사하게 흉내 낼수록 더욱 성공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렇게 해 가는 중에 차차 나대로의 통화하는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므로 통화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권하고 싶다. 진정 한 사람의 통화가를 양성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어린이의 참된 친구로 교사로 자라난다면 다 기뻐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고로 통화하러 나가기 전에 준비로써 많은 선배들의 통화하는 모습들을 세심히 연학하고 그 위에 자기의 성질과 교양 등 여러 가지를 배합하여 하나의 자기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이다.

2) 통화를 많이 읽을 것

위에 말한 견문은 곧 통화를 많이 들으라는 말도 되는 것이다. 많이 들으면서 통화하는 사람의 모습들을 똑똑히 익힐 뿐 아니라, 또 통화를 많이 읽을 필요도 있는 것이다. 많이 읽는다는 것은 곧 통화를 많이 안다는 말도 될 수 있는 것인데, 통화를 많이 안다는 것은 통화하는 사람으로써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통화를 읽을 때 재미에 이끌리어 읽는 것은 대단히 좋다. 그러나, 그 통화를 읽음으로써 재미만 얻으려는 목적 외에 내가 남(어린이)에게 통화를 해준다는 입장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통화를 읽을 때에 그 통화를 분석해 가면서 읽을 것이다.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1) 주제를 정확히 파악할 것

주제라고 하는 것은 곧 동화의 목적이다. 그 동화가 궁극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주제이다. 앞에 동화의 진실에서 예를 든 동화의 주제는 정직인 것이다. 어떤 동화나 동시, 소설, 시 등 주제가 없는 것은 없다. 그러나 어떤 작품들은 이 주제를 파악하기에 꺽이나 힘이 듈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어 몇 번이고 읽으면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거기 에 사용되는 언어나 구성, 이 모든 것들은 이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낸다는데 집약이 되어 있다. 고로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결단코 효과적인 동화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런고로 동화를 읽을 때는 반드시 동화의 주제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할 것이다.

(2) 구성을 분석할 것

구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쉽게 표현하려면 아마도 건축 의 설계도를 예로 들면 쉬울 것 같다. 구성은 곧 설계를 말한다. 모든 작품들은 이러한 구성이 있다. 그 작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보는 것은 유익하다. 이 구성은 곧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방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즉 구성을 분석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구성은 다섯 단계로 나뉜다.

- 가) 발단-곧 그 작품의 허두 시작인 것이다. 그 작품 전체를 암시한다.
- 나) 전개-발단된 사건 혹은 성격이 상황을 따라 펼쳐 나가는 과정을 전개라고 한다.

다) 위기-이 위기는 설정하지 않아도 괜찮을지 모르나 청중, 혹은 독자로 하여금 흥미와 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설정해 두는 것이다.

라) 결정-그 동화의 정점이다.

마) 결말-대단원.

이 다섯 단계를 정확하게 분석해 낼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모든 작품은 이것이 발단이다 전개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 주의를 집중하여, 내가 동화를 하기 위하여 연구하면 어떤 뚜렷한 선이 머리에 떠오르게 된다.

(3) 소재를 검토할 것

소재(素材)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를 말한다. 즉 집의 설계도를 구성이라 하면, 그 건축 재료가 소재인 것이다. 벽돌, 시멘트, 흙, 혹은 나무, 철근 등등, 이것이 곧 소재에 해당한다. 동화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동화의 소재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목적이나 선다면 수단은 어찌해도 좋다 하는 사상을 필자로 써는 환영할 수 없다. 이것은 즉 주제가 좋으면 소재는 아무래도 좋다는 사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주제가 좋은 만큼 소재가 좋아야 한다. 주제를 건축에 비겨 말하면, 건축이 완성된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좋은 건축물일수록 그 사용된 재료가 좋아야 한다. 좋은 주제는 반드시 좋은 소재에 담겨진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동화는 반드시 좋은 소재로 좋은 주제를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동화를 읽을 때 반드시 그 소재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동화를 써 볼 것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쓴다는 것은 사회의 어느 잡지에 발표하기 위하여 써 보라는 것이 아니다. 문장이야 어떻게 되던지 구성과 주제와 소재의 순화, 명백, 치밀을 위해서 써 보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창작하는 이점은 내 것을 내가 말하기란 남의 것을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 가는 가운데 동화를 하는 사람으로써 원숙한 자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4). 음성 훈련을 할 것

구연은 입으로 하는 연극이라고 말했다. 입으로 하는 연극은 결국 말로 하는 연극이다. 그러므로 음성과 말로 동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배역들의 성질을 드러내어야 한다. 사람은 물론 동물과 때때로는 무생물들의 효과음 까지 내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소리 훈련을 하는 것은 음변가들이 음성 훈련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야 기 속에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남녀 어른들의 음성, 또 남녀 청소년들의 음성, 유년, 유치, 영아들의 목소리도 자유 자재로 낼 수 있도록 훈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차 소리, 자동차 소리, 자동차 소리에는 트럭 소리, 버스 소리, 승용차 소리, 또한 짐승 소리들, 개소리, 고양이 소리, 호랑이 소리 늑대 소리, 여러 가지 새소리들, 그리고 자연의 소리 바람 소리, 빗소리, 물 흘러가는 소리, 등등. 이런 것을 적자면 한이 없다. 이런 모든 소리들이 구연 동화를 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음성 연기의 분야이다.

음성과 말씨와 표정은 그 배역의 인품도 드러낸다.

그래서 사극(史劇)에서 간신의 배역을 맡은 사람은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냈으므로 간신의 인품을 드러낸다. 실제로 그 간신이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극중에는 그런 소리를 내어야 간신의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목소리를 그렇게 꾸미는 것이다. 충신이나 왕이나 장군은 음성과 표정과 동작에서 그런 직위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연극은 동작으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도 음성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그렇거든 하물며 구연에서는 음성과 표정과 몸짓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 강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소리를 내는 일이나 소리에 걸맞은 표정을 짓는 일에 겸연쩍은 모습은 절대 금물이다.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런 음성과 표정이 나타나야 한다. 이런 것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척 어렵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 필자도 이런 목소리와 표정을 짓는데 무척 어렵게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나 혼자서 꽤나 연습을 했었다. 개그를 하는 연예인들 못지 않게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때 한국에서 인기 가도를 달리던 후라이 보이 꽝규석씨 같은 사람이 마이크 앞에서 내는 의성어(擬聲語)들은 듣는 사람의 정신을 흔뻑 사로잡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통화가는 모든 의성어나 의태(擬態)에 그만큼 되도록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2. 통화하려 나가기 위하여

이상 통화하려 나가기 전의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어느 자리에서 통화를 부탁 받았을 때 이제는 통화하려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1) 통화의 선택

이제 내가 통화를 부탁 받았으면 내가 나가서 해야 할 그 시간에 가장 적당한 통화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 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흔히 교회에서 어린이들 앞에 하는 통화들은 그날의 공과 내용이 상통하는 것이면 그날의 효과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의 공과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

그리고 통화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다음을 유의하라.

(1)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통화를 선택하라.

통화의 원리 편에서 말했듯이 통화의 사명이 재미인데 이 재미 속에는 진리가 용해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진실이라 해도 좋겠다. 통화 내용에 종교적인 진리 혹은 과학적 역사적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통화를 통하여 듣는 어린이의 상상력이, 그리고 정서가 개발되고 순화되어지는 것이다. 통화 속에 이러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흥미 그것만 있을 때 감정에 해로운 자극과 필요 없는 흥분을 일으키므로 그 인격의 기반을 크게 그릇 놓기가 쉬운 것이다.

(2) 적극적 진리일 것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택하더라도 그 포함된 진리가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진리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일이

니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가진 동화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도둑이 교묘하게 도둑질을 하다 가 결국은 블잡혀 사형을 당했다는 것으로 얘기의 종결을 지으면 도둑질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니 결코 해서는 안되다 하는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것이다. 그러나 면저도 말했듯이 그 동화의 끝에 이러한 주를 다는 것은 하나의 사족이 된다. 그런 고로 주제는 대단히 좋지만 결국 소재는 좋지 않다. 어린이들은 주제뿐 아니라 소재 그 자체도 그대로 마음에 새긴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편에 예로 든 그 미국의 범죄 청년에게 결코 범죄 하라는 동화는 하지 않았을 것이나 그 소재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주제는 고사하고 그는 그 소재를 생활화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 만큼 소극적 진리는 흔히 그 소재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진리는 반드시 적극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결국 좋은 일을 행하는 모본들을 소재로 한 동화들이 모든 면에서 좋다는 말이다. 한 어린이가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불사하고 남을 도와주는 얘기, 이런 것은 얼마나 좋은 소재이며 좋은 주제이겠는가. 그런 만큼 진리를 포함한 동화를 선택하되 반드시 적극적 진리를 포함한 동화를 선택해야 좋을 것이다. 동화는 놀이와 비교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소재는 놀이의 과정(過程)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진리를 포함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것이다.

(3) 단일 목적인 것

어린이의 머리는 단순한 만큼 주제가 단일해야 좋다. 주제가 정직이면 정직, 선행이면 선행, 희생이면 희생,

그것 하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어린이의 머리에 무리 없이 스며드는 것이다.

(4) 연극적인 이야기

어린이와 동화 세계에서 윤석중 선생의 “넉점 반”을 펼쳐 보았거나와 동화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사건이 연극적이며 구체적인 것이 좋다. 그러므로 그 사건 하나 하나에 진리가 포함됨으로 듣는 자에게 지루함이 없는 재미 속에서 거기 용해된 진리들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동화를 듣는 동안 어린이들의 마음의 눈앞에 바로 그 동화의 사건들이 실지 그대로 나타나도록, 즉 요지경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사건들이 전개되듯이 동화를 하는 동안 그 동화가 바로 어린이의 마음에 사건으로 보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연극적 이야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5) 동심에서 우러난 것

동화는 동심에서 우러난 것을 택해야 한다. 동화란 어린이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한 어른들의 어린이를 위한 언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동화가 동심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하면 이미 동화는 아니다. 그러므로 그 동화의 사상이 바로 동심에서 우러난 것이어야 하겠다.

(6) 생활에서 소재를 택한 것

어린이의 생활 자체가 동화 그것을 산다고 했다. 그런 만큼 그들이 생활은 하나 말로 표현 못하는 것을 깊이 관조 통찰한 어른들이 어린이를 위한 말들로 그것을 그들 앞에 펼치어 보일 때 그들은 대단한 흥미를 느끼

는 것이다. 물론 동화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소개했으나 생활 동화가 더욱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생활이라는 것은 광의로 해석해 볼 때 어린이의 세계, 곧 동화의 세계에서 설명한 그 모든 것이 어린이들의 생활인 만큼 구태여 생활이라는 말에 구애되어 틀에 박을 필요 없이 선택되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7) 실감을 주는 동화

이것은 내용보다 동화가의 역량이라 하겠다. 선택한 동화를 그야말로 실제로 그 사건을 지금 막 눈앞에서 보는 듯이 전개해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효과적인 일인가. 이러한 효과를 쉽게 낼 수 있는 소재로 구성된 실감을 주는 동화를 택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2). 선택한 동화를 요리할 것

본인의 창작 동화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동화를 선택했다면 우선 내 식성에 맞도록 요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즉 선택된 동화가 자기가 만든 동화 이상으로 자기화 해야 하는 것이다. 동화를 한다는 것은, 그 동화를 어린이 앞에서 생활로 펼치는 것인 만큼 동화하는 사람이 그 동화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면 결단코 생활로 펼칠 수 없다. 동화를 음악이라 하면 동화가는 연주자이다. 그것이 합창이나 오케스트라라면 동화가는 지휘자인 것이다. 한 음악을 그 본래의 가치를 잘 드러내도록 연주하는 것은 지휘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 그처럼 동화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선택된 동화의 내용이 살아서 듣는 어린이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동화하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동화를 면밀 주도하게 분석 검토하여

완전히 자기 것이 되도록 하여 구연 자리에 서도록 해야 한다.

(1) 확대법(擴大法)

만일 자신이 선택한 동화가 배정된 시간보다 짧은 것일 때에는 동화를 시간에 맞도록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동화를 늘이는 것을 확대법이라고 말한다.

동화를 잘 분석하여 가장 적당한 장소에 조금도 부자연하지 않게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제 토끼와 거북의 경주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확대법을 알아보자. 이 우화는 아주 짧은 이야기다. 2.3분 정도면 다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을 10분 정도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꼭 생겼다면 10분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야 한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적어 보면 간단하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했다.

토끼는 한참 뛰다가 뒤를 돌아보니 거북은 보이지도 않는다.

“한잠 자고 가야지, 이제 산꼭대기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토끼는 길섶 풀밭에 옹크리고 잠이 들었다.

거북은 느린 걸음이지만 부지런히 쉬지 않고 걸어서 토끼가 자는 동안 그만 산꼭대기 목표 지점에 먼저 도착해서 만세를 불렀다. 잘 뛰는 토끼가 그만 겼다.

이처럼 토끼와 거북의 경주 이야기는 짧다. 짧은 이야기 속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0분 정도가 이야기 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다면 이 짧은 이야기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확대를 할까? 이 일을 위하여 이야기를 분석해야 한다. 그 분석의 결

과 발단 혹은 전개 등 어느 부분에 확대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가를 파악한 후에 그 가장 적당한 부분에 삽입 확대를 하는 것이다. 위에 든 “토끼와 거북”을 분석해 보자. 이것은 원작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옮긴 것이거나와 이것을 중심 해서 분석하는 일에야 지장이 없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다.(발단)

토끼가 한참을 뛰다가 뒤를 돌아보니 거북은 보이지도 않는다.(전개)

“한잠 자고 가야지, 이제 산꼭대기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토끼는 길섶 풀밭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위기)

거북은 느린 걸음이지만 부지런히 쉬지 않고 걸어서, 토끼가 자는 동안 그만 산꼭대기에 먼저 올라가 만세를 불렀다.(결정)

잘 뛰는 토끼가 그만 죬다.(결말)

이렇게 분석이 됐으면 어디를 확대할 것이며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위의 얘기는 모든 부분에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럼 도움이 될가해서 간단히 확대하는 흉내나 내어 보고자 한다.

발단을 확대한다.

이미 한 얘기를 확대하려면 그 이야기의 주제를 다치지 않는 한 그 이야기를 임의로 확대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럼 이 이야기의 주제는 김천택의 시조 “잘 가노라 달지 말며”라는 것과 같은 것이고, 소재는 토끼와 거북이다. 이 주제를 한껏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하여 원 작품 속에 주어진 소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확대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발단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시퍼런 물결이 출렁대며 밀려오는 어느 바닷가에 읊

창한 숲이 우거져 있었다. 이 숲 속은 토끼 나라였다. 토끼들은 기다란 귀와 동그란 눈망울을 가지고 하얀 옷을 자랑스럽게 흔들면서 즐겁게 놀고 지냈다. 이 토끼 나라가 있는 바로 옆 바다에는 거북의 나라가 있었다. 거북들은 물 속에서 지내기가 심심해지면 바닷가로 영금영금 기어 나와 바다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숲 속 나라에 와서 토끼들의 노는 모습을 재미있게 바라보곤 했었다. 그런데 토끼들은 이 구경 나온 바닷 손님을 볼 때마다 깔깔대고 웃었다.

‘아이구, 어찌면 네발 가진 너석이 저렇게도 느릴까, 쫓듯!!’

토끼들은 저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 멋없이 영금영금 다니는 거북의 모양을 손가락질하며 놀려댔다. 거북들은 모처럼 구경을 나온 김이라, 사실 그 느린 걸음이고 보니 뭐라 말도 못하고 목을 잔뜩 읊挫리고 가만히 엎드렸다가 바다 속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끼들은 거북을 골탕 먹일 의논을 했다.

토끼 의장이 말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명청이 거북이들을 멋지게 골탕 먹일 수 있을까요?”

위엄 있게 돌아보며 말하는 의장의 말에 젊고 재빠른 토끼 한 마리가 냉큼 대답을 했다.

“경주를 하자고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못한다고 부끄러워 젤점매는 꼴이 가관이겠지요.”

“옳소, 옳소!! 대단히 좋은 의견이요!!”

토끼들은 저마다 재미있다고 야단들이었다. 토끼들의 의견이 일치하자, 며칠 후 또 놀러 나온 거북을 토끼들

이 블들고 말을 건넸다.

“거북님!”

“왜 그러시오?”

“우리 자주 만나는데 그냥 지내기가 심심하지 않아요?
우리 재미있는 놀이나 합시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놀이를 할까요?”

“예, 거북 나라에 제일 잘 뛰는 분하고 우리 나라에 제
일 못 뛰는 분하고 경주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거북은 정신이 아득했다. 대답도 못하고
쩔쩔 마다가,

“어 이구, 그건 말도 안됩니다.”

“하하 하하! 왜 말이 안돼요, 천지에 네 발 가지고 뛸
는 걸 그렇게 겁을 내서 어쩝니까? 푸하핫!”

토끼들이 유쾌하게 웃어젖히는데 그 웃음소리가 끝나
기도 전에 뒤에서 한 무리의 꼬마 토끼들의 합창이 들
려 왔다.

“여보 여보 거북님 내 말 들어보

천지간 동물 중에 네 발 가지고

그같이 느린 걸음 처음 보았네.”

“아하하....!”

왁자지껄 웃음이 터져나와 배꼽을

쥐고 구르는 놈, 귀를 쥐고 뻥뻥 도는 놈, 온갖 놈이 다
있다.

거북은 토끼들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얼굴이 화끈해
지며 숨을 할딱거리며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놀려 나온 거북 대장은 분연히 일어나 대답을
했다.

“좋소, 합시다. 우리가 진다 해도 거북답게 지겠소. 결
코 당신네들처럼 비겁하지는 않을거요.”

“하하하! 경주를 하시겠다? 그 용기 참 장하오. 후회는
마시오, 깔깔깔....!”

“뭐, 거북이 우리와 경주를 하겠다고? 땅에서도 잘 뛰
기로 유명한 우리와, 앗하하!!”

“그럼 우리 제일 어린 꼬마와 당신네 가장 어른과 뛰
기로 합시다.”

“아니오, 거북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지 못하겠소. 당신
들도 어른이 나오도록 하시오.”

거북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하하하! 그 용기가 대단하오. 그럼 우리 뛰기로 합시
다.”

그래서 이 숲 속 나라에서는 토끼와 거북의 경주가 벌
어지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발단을 확대시켜 본 것이다. 지금 기록한
것은 문학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확대
법을 설명하는 방편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지극히
간단했던 발단을 시간에 알맞게, 그러면 서도 재미있도록
확대하는 것은 그 동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방법이며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유익이 되는 것이다. 막
상 이런 연습 없이 짧은 동화를 시작했다가 시간이 너
무 많이 남아 절절 매개 되면 듣는 어린이는 흥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는 사람도 맥이 빠지고 당황하게 마
련이다.

이상 여기서는 발단만 확대시켜 보는 것으로 예를 그
치기로 하거나와 전개와 위기, 절정 등 모든 구성에 적
당하게 확대를 하는 법을 연습하여 이것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화하게 되면 어떤 동화든지 마음대로 선택하여
요리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시간적인 애로를 해결해 줄뿐

만 아니라, 그 동화가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를 듣는 자의 인상에 재미있게 깊이 새겨 주는 유익도 있다.

위에 든 예에서 단순히 토끼와 거북의 경주의 결과 토끼가 게으름을 피워서 겼다, 하는 것 보다, 경주를 하게 되기까지의 토끼들의 거드름 피우는 아니꼬운 모습과 거북의 젤젤매나 어엿한 모습들이 바로 이야기 속에 그대로 나타남으로 어린이의 마음속에 인상이 깊어지며 은연중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교훈이 담겨지게 되기도 하는 것이며,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도 확연히 뇌리에 박아 줄 수 있는 것이다.

(2) 축소법

축소법이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이것은 확대법과는 반대되는 법이다. 선택한 동화가 너무 길어서 짧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경우, 그 동화의 구성 중에서 적당한 부분을 삭제해 버리거나 긴 말들을 몇 마디 표현 속에 함축해 버리거나 대화를 축소시켜 버리는 방법이다. 특히 그 동화에 포함된 진리를 나타내는데 불필요한 말들이 있으면 사정없이 삭제해 버려야 한다. 그러나 대개 하나의 작품은 치밀 주도한 구성 아래 쓰여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란 잘 없다. 그런 만큼 이 축소법이란 확대법 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장편 소설을 주제의 희미해짐 없이 짧막하게 축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가끔 잡지 같은데 대 장편 소설의 '다이제스트' 한 작품들이 실리는 일이 있는데 축소법이란 바로 그런 방법이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 작품에 대한 이해를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겸하여 확고히 해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연습해 가는 가운데 동화가로

자유 자재의 방법을 익히게 될 것이다.

(3) 절단법

이것은 동화 중에 위기의 부분이나 절정의 부분에서, 혹은 그 이상의 말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확실히 느낄 때 그만 뚝 끊어 버리는 방법이다. '죠지 스티븐슨'의 종편 중에 '마악하임'이라는 것이 있다. 그 결말은 멎지게 절단법을 쓰고 있다. 마악하임이 상점 주인을 살해한 후에 그 집 하녀에게 하는 말이다. 아직 아무 사건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그 집 하녀에게,

"너는 가서 경찰을 불러오너라."

"예?"

"나는 너의 주인을 죽인 자이다."

이것으로 끝나 버렸다. 뒤에 하녀가 경찰서로 뛰어갔다느니 혹은 전화를 함으로 경찰이 왔다느니 하는 등의 군더더기지가 없다. 허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함으로 오는 유익 혹은 효과가 오히려 반감될 우려가 있을 때, 이런 절단법을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절단법은 종결에 가서만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절단이 효과 있겠다고 생각하는 곳에는-면밀한 판단 후에-사용할 수 있다.

-소년들은 밧줄을 타고 조심조심 조마조마 바위산을 오르고 있었다.

'찍--'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야, 밧줄이, 밧줄이....!"

"으--악!"-

지금 등산하는 얘기 중에 밧줄이 끊어져서 등산가가

떨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으악!’ 하고 절단해 버리는 것이 ‘기어이 밧줄은 끊어졌다. 소년들은 그만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마구 떨어지고 말았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절단했을 때는 듣는자의 주의가 갑자기 집중되는가 하면 긴장되고 다음 장면이 궁금하여지는 흥미(호기심)가 발발하게 마련이다. 또한 이야기만 절단되었을 뿐 아니라 절단 후 한참 휴지의 공간을 두는 것은 효과적이다. 이것은 다음 휴지부에 대하여 설명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수는(한 소년은) 온 몸이 시큰시큰 아픈 것을 느끼며- 이런 식으로 이어간다. 특히 위기 설정에 대단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요령 있게 잘 하지 못하면 이 절단 부분 동안 김이 빠져 버릴 우려도 있는 것이다.

(4) 반복법

반복이란 말이 나타내듯이 이야기 중에 가장 흥미 있고 또 주의를 환기시킬 만한 자리 또는 꼭 반복이 필요할 위치에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수평선 너머로 주춤주춤 어둠이 걸어오면 바다 위를 날던 갈매기도 깃을 찾아 들어가고 이 외딴 섬 등대 탑에는 불이 빛나야 하는 것이다.

“쏴아 쏴아, 철썩 철썩.”

어둠에 밀리듯 파도는 쉴새 없이 섬 가를 춤고 있는데, 아직도 육지에 나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쏴아 쳐르륵, 쳐르륵, 쏴아--”

파도 소리는..-

이런 식으로 파도 소리를 반복함으로 그 동화의 분위

기를 살리는 방법이다. 동화의 분위기란 곧 진리를 흡수하는 분위기인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 앞에 말했듯이 진리의 알맹이가 따로 동화 속에 구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재미라는 동화의 분위기 속에 용해되어 전달되는 만큼, 이 반복법이 가지는 효과는 크다.

어릴 때 남을 놀라게 하는 얘기를 동무들 앞에서 시침을 뚝 떼고 하다가 갑자기 “왁!!” 하고 놀라게 해 주던 일이 있었다. 이 때 놀라게 해 주기 직전에 한 살인한 청년이 산 속을 헤매다가 불을 보고 그리로 들어갔을 때의 장면에서 그 주인이,

“내 아들이 장사를 하러 갔는데 아직 안 들어오는구려.”

“예, 장사를요?”

“음, 내 아들이 장사를 하러 갔는데, 그 참 장사하러 가서 이렇게 늦도록 안 오기는 처음인데.”

“.....”

“그놈, 내 단 하나뿐인 아들인데.”

“.....?”

“그런데, 내 아들을 죽인 놈은... 바로 네지!!”

하고 듣는 동무의 어깨를 턱 치면 그는 기절을 하도록 놀래곤 했었다. 이야기는 놀라게 해 주는 것이 목적이는데, 듣는 자는 지금 바로 살인한 청년의 공포심을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는 형편이다.-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공포의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내 아들이 장사하러 갔는데.”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청년이 바로 살인자인 만큼 그 반복되는 단조로운 말에 따라 점점 더 공포의 절정에 올라가고 그와 같이 듣는 자도 그렇게 되어 그 이야기의 목적하는 바 효과를 십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놀라는 얘기를 예로 들어 이상해졌지만 반복법을 효과 있게 설명하는 방편으로 들었다. 진리를 전달하는데도 가장 적당한 자리에 이 반복법을 사용함으로 그 통화의 분위기를 잘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5) 휴지부 설정법

휴지부 설정법은 절단법과 비슷한 것이다. 이것은 통화의 효과를 위해서 한 사건과 한 사건의 중간에 공간을 두는 방법인데 주의를 집중한다든지 그 분위기가 바로 그래야 할 경우에 쓰면 좋다.

- "붕붕--"

기선이 뱃고동을 울리며 아득히 보이는 등대를 보고 길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갑자기.....시커먼 물건이.-

이런 식으로,

-순이는 나를 바구니를 옆에 끼고 산모통이 길을 돌며 나물을 찾았다. 순이는 서울 간 언니가 언제나 올까 하고 생각하며 앉았던 자리에서 별떡 일어서서 저쪽 철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앗.....저기.....저기에는 바로 언니가.-

이런 식으로 휴지부를 설정하면 통화에 긴박감이 올뿐만 아니라 통화의 분위기 외에 그 듣는 장소의 분위기도 산만하지 않게 이끌고 나아갈 수가 있다.

(6) 통화를 재구성해 볼 것

이것은 똑같은 통화를 두 번 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다. 옛날 얘기는 그 허두와 전개와 결말이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다. 즉,

-“옛날 옛날에, 어느 동네에 한 부자가 살았거든. 그

런데 아들이 없어...”-

이런 식이다. 요즘 어린이는 너무 많은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는 한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듣는 수가 많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아주 흔하고 또 많이 하는 동화라도 나 이외에는 내가 하는 방법으로 할 사람은 결코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백 번을 들은 얘기라도 내가 하면 새로 듣는 동화 같이 들을 수 있으리라는 자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동화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처음 듣다가 벌써 한 번 들은 이야기이면 결코 집중하려 들지를 않는다.

“음, 저 얘기 벌써 들은 걸.”

그리고는 다른 장난 즉 다른 흥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준비를 잘 했어도 그 이야기는 성공할 수 없게 된다. 그런고로 하나의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구성을 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앞서 얘기한 고기 잡는 소년에 대한 얘기를 예로 들면,

“바닷가에서 한 소년이 고기를 낚고 있었다.”로 시작해서 기록된 순서를 그대로 밟아 가면, 만일 그대로 들은 소년이 있으면 흥미를 잃게 마련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 처음에 주의를 확 모으게 되면 그 동화의 반은 성공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끝부터 먼저 시작해도 좋다.

-소년은 얼굴에 웃음을 함박 꽂파우고 황혼이 몰려오는 들판을 급히 달려가고 있었다. 참 생각하면 꿈 같은 일이다.

‘야, 그럴 수가 있을까. 필경 하나님의 하신 일 일거야.’

소년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철철 넘쳐흘렀다.

소년의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이런 식으로 처음을 시작하면 적어도 바닷가에서 이틀씩이나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다는 말이 나오기까지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또, 궁정에서 나뭇잎을 다는 일부터 얘기해도 좋다. 나뭇잎을 지푸라기로 바꾸어도 괜찮은 것이다.

-궁정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지켜보던 모든 대신들의 눈은 휘둥그래지고 입은 크게 벌어졌다. 임금님 앞에서 천성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임금님 앞에 읍하고 서 있는 소년의 입술이 가볍게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다.

“허허.. 참 장한지고.”

임금님의 무거운 음성이 궂전을 스치는데 소년은 지난 일을 머리에 새기고 있었다.

벌써 며칠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펼쳐도 좋은 것이다.

또 총리 대신이 찾아와서 그 소년을 시험하는 장면부터 시작해도 좋다.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에 뒤이어 ‘하하하 하하하’ 호탕하나 비웃는 웃음소리가 들려 왔다. 소년은 흠칫 놀라면서 확 뒤로 고개를 돌렸을 때 어떤 점잔은 신사가 소년의 하는 일이 심히 우습다는 듯 웃고 있지 않는가. 소년은 육 화가 치미는 것을 가까스로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전개해도 좋을 것이다.

토끼와 거북 이야기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선택한 이야기를 검토한 후에 재구성을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

시켜 두렵없이 어린이들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재구성을 하더라도 그 구성에 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아주 자연스럽게 재구성을 해야 하며 그 구성이 원래의 것에 빛을 더하고 효과를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서툰 연주자가 곡을 망치듯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모든 준비에 털끝 만한 흠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은 이렇게 준비하기에 너무나 사간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어린이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조금씩 이런 준비를 하는 버릇을 기르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이다.

3) 선택한 동화를 도울 재료를 수집할 것

이상의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 한 동화를 선택하여 요리했으면 이제는 이 동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연(口演)하기에 필요한 보조 재료를 수집할 차례가 된 것이다. 이 재료들은 선택한 동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이 요리한 대로 펼칠 수 있는 재료들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시청각 재료들이다. 그러나 이 재료들은 말의 졸(拙)함을 보충하는 결과일는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말로써 이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금상첨화(錦上添花)격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1). 동화 환경 그림을 준비하는 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야기의 환경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가장 적당한 시간에 그 그림을 이용하면 시청각 교육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그 환경을 정확하게 상상하기 좋고, 이야기를 듣는 어린이들은 그림 속의 환경에 상상으로 들어가서 그 거리, 그 숲 속, 그 언덕을 달리며 신이 난다. 이런 경우 동화하는 사람의 기술 여하에 따라서 동화 삼매경(三昧境)에 들어간 어린이들은 저도 모르는 중에 동화 속의 사실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수가 있다.

(2). 동화와 관계 있는 음악을 준비하는 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음악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이다. 그러나 너무 지루하게 이용하면 도리어 산만해질 우려가 있다. 그 동화 중에 주인공이 노래하는 장면이 있으면 그 노래를 동화하는 사람이 주인공의 연기를 노래로 하면 좋다.

(3). 동화에 나오는 풍속을 알아볼 것.

자신이 선택한 동화가 포함하는 그 지방, 그 시대, 그 환경의 풍속을 알면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준비한 동화에 임금님과 신하의 대화가 있으면 바로 격식에 맞도록 자연스럽게 그 풍속대로 동화를 펼쳐 나가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그 풍속을 잘 알 수록 정확하게 재현 할 수 있을 것이다.

4). 혼자 연습할 것

옛날에 누군가가 음변을 연습하는데 발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입 속에 칼을 넣고 말하는 연습을 했었다고 한다.

이제 동화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으면 이 동화를 자신의 기술로 얼마나 정확히 구연(口演)으로 재현(再現)할 수 있는지 실지로 연습을 하는 일은 아주 효과적이다.

아무리 원숙한 동화 구연가라도 준비 연습이 없으면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필자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라도 설교를 위하여 회중 앞에 설 때에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끼는데, 미리 연습하지 않고 선다는 것은 무모한 모험일 수 있다.

연습은 아무데서나 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동화하는 연습을 하기 위하여 가족들을 청중으로 삼고 몸짓 발짓을 해 가며 연습을 했는데 어찌 그리 어렵고 싱겁고 어색한지, 혼자 주저주저하고 서먹서먹하고 웃음이 자꾸만 나오는데, 식구들은 총고 겸 핀잔을 주었다.

“겨우 서너 사람 앞에서 제대로 못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뺏을 할거라고.”

사실이 아닌가? 그러므로 아무도 없는데서 스스로 없이 능숙하게 할 수 있을 때에 여러 사람 앞에서도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동화를 구연한다는 것은, 구연(口演) 즉 입으로 연극을 한다는 말이다. 배우들의 자기들의 배역을 맡아 열심히 연기를 연습하듯이 동화가도 말로 동화 속에 나오는 모든 배역들의 연기를 연습해야 한다. 배우들은 말은 배역의 연기만 연습하면 된다. 그러나 구연은 구연하는 사람 혼자서 동화 속에 나오는 모든 배역의 연기를 말로 다 해야 하는 것이니 얼마나 어렵겠는가?

영화나 연극의 관객들이 출연하는 배우의 연기를 평가하듯이 동화를 듣는 어린이들도 그럴듯한 평가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동화가는 명배우 이상의 구연자가 되기 위하여 연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연습을 하는 것은 아무리 권장해도 지나치다고 말 할 수 없다.

별써 어린이들은 그 날의 동화자의 이름을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해 버리고 만다.

<아, 그 선생님 시시해>,

<아, 그 선생님 참 잘하시지>.

동화를 하는 사람은 모든 어린이들의 인상에 <! 그 선생님 참 잘하시지>라는 인상을 줄 때에 별써 이름만 듣고도 동화하는데 50점은 따게 되는 것이다.

5). 모든 준비를 재검토할 것

이상 모든 준비, 즉 동화의 분석, 재구성,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충분히 되었는가를 재검토하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동화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 준비한 것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어린이들에게 그 아름다운 보물을 나누어주는 요술사로 서야 하는 것이다.

3. 동화하려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동화를 하는 것은 말로 연극을 하는 것이다. 일반 연극은 배역이 따로 있지만 동화의 연극은 동화하는 사람이 말과 음성과 몸짓으로 동화 속에 나오는 모든 배역의 연기를 홀로 다 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말한 대로 음성 훈련은 동화 속에 나오는 모든 등장 하

는 인물과 사물의 역할을 감당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일인 이역이 어려운 일이라면 하물며 일인 다역(多役)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러나 동화하는 사람은 일인 만역의 역량(力量)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대로 동화하는 연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음성이다. 그러므로 노인 음성, 젊은이 음성, 여자 음성 남자 음성, 어린이 음성, 청소년 음성 등을 연습해야 한다. 그래서 동화 속에 나오는 인물을 따라 그 인물들의 음성으로 그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음성과 동작으로 구연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실지로 어린이 앞에 서게 되는 데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보자.

1). 단 상에 오를 때

같은 장소에서 늘 대하던 선생님도 예외로 돌리기는 어렵겠지만 처음으로 소개받아 단에 나설 때에는 나가는 걸음부터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들은 예민하여 동화하러 나가는 사람의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태도에 관심을 기울인다.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다든지 몸을 흔드는 것 등이 자연스럽지 못하면 그것을 하나의 별명으로 만드는데 지극히 탁월한 소질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머리 모양 옷의 단정 등 세밀한 주의로 어린이 앞에 흄잡힐 것 없는 준비를 하고 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흄이 없이 단정할 때에 어린이들은 기대를 가지고 주목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안심하고 주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린이 앞에 첫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2). 단상에서

일단 단상에 오른 후에 장소의 분위기를 재빨리 파악해야 한다. 물론 단 상에 오르기 전에 그 장소에 들어와서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장소의 분위기를 파악해 두면 단상에 나가서 대응하기가 더욱 좋을 것이다.

하여튼 장소에 비해 지나치게 사람이 적어서 장내가 영성하다든지 지나치게 사람이 많아 답답하게 느껴진다든지, 통화를 시작하기 전에 재빨리 통화하기에 알맞도록 장소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통화하기에 적합하도록 주위가 잘 정돈 통솔되어 있는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여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속히 통솔 정돈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린이들은 빨리 집중되고 또한 빨리 산만해진다. 그러므로 단상에 통화하기 위하여 선 사람은, 그 시간은 자기의 절대적인 시간인 것을 인식하고 모든 주의가 흘어지지 않도록 매력 있는 통솔을 해야 한다. 장소가 지나치게 소란하다든지 도무지 주의가 집중되지 않을 때에는 간단하고 잘 보급된 동요를 다 같이 부르게 하든지, 혹은 심히 떠드는 곳을 향하여 아무 이름이나 불러서 요령 있는 한마디의 꾸지람을 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저기, 순이 조용해) 이런 정도로.

그러나 만일 거기 처음 갔으면 그곳에 순이가 있는지 분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름의 발음을 정확히 하지 않는 요령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이름을 부른 후에는 그 자리를 계속 보고 있으면 안된다.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어린이들은 선생님의 눈길이 가 있는 곳으로 돌아보기 마련인데 그 곳에 순이나 분이가 없으면 어린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거기 순이가 없는데, 선생님은 우리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 이름을 막 부른다.” 이런 말들로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이름 부른 것은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애매하게 발음하고 눈을 열른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꾸중하는 태도를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어린이가 다 조심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적은 수의 어린이가 모인 곳이나 아주 좁은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빤하게 모두가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 장소의 상태를 따라 통화하기에 알맞은 장면과 분위기를 만들면서 매력 있게 통솔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말이다.

또한 단상에 있을 동안에 결코 어린이들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한번 잡은 어린이들의 눈길을 결코 놓아주어서는 안된다. 시종 긴장한 태도로 모든 시선이 통화하는 사람의 시선에 압도되어 통화하는 사람의 눈이 움직이는 대로 모든 어린이들의 눈이 따라 움직이게 되도록 어린이들의 눈을 통솔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단상에 서 있는 모습이 당당하고 위엄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준비하여 이야기하는 통화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자신감을 은연중에 드러내어야 한다. 자기 자신(自身)의 태도에 자신(自信)이 없으면 그 통화는 벌써 실패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앞 장에서 기록한 모든 준비가 잘 되었으면 이미 그 통화는 완전히 자기 것이 된 후일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못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는가?

3). 통화를 시작하고

동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준비되었으면 이제는 통화 구연을 시작해야 한다. 먼저 흥미를 최고로 돋굴 서화(序話), 뒤에 궁금증을 함빡 남겨 둔 서화를 시작한다.

(1). 명쾌하게 할 것이다.

동심은 명랑하다. 그러므로 명쾌하게 통화를 진행시켜야 한다. 물론 내용이 비통한 것이라면 비통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그것도 명쾌하게 비통해야 한다. 모든 것이 동심에 지나친 자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2).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흔히 통화하러 나가면 손 들 곳을 몰라 당황한다. 웃 고름을 자꾸 만지는 여선생, 주머니에만 손을 꽂고 있는 남선생, 뒷짐만 지고 있는 사람, 손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에 대하여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다. 책 늘어 뜨려도 좋다. 그러나 통화의 사건에 알맞도록 손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지나치게 손을 흔들어도 좋지 않다.

손뿐만 아니라, 표정과 몸짓 전체가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 장면에 아주 알맞은 동작을 해야 한다. 내용과 몸짓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금세 웃어 버린다.

(3) 개성을 살릴 것

자기의 몸의 상태, 성격 등을 억지로 꺾을 필요는 없다. 너무 통화 연기에 열중한 나머지 자기 체구나 성격에 어울리지 않게 하여 자기 개성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 키가 큰 사람은 큰 대로, 풍보는 풍보에 맞게 그

모든 언어 동작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러운 것과 개성과의 관계는 별개의 것이 아닐지 모른다.

(4) 자신이 동화(童話)에 동화(同化)할 것

완전히 자기가 동화 속의 인물과 사건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듣는 어린이들도 그 속에 동화(同化)될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감동되지 않는 이야기로 남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음성

음성 훈련을 해야한다는 데서 이미 자세히 말한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뜻에서 여기에 반복해서 적는다. 음성은 구연 동화에서 그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이다.

동화는 말로 하는 연극이라 했다. 그런 만큼 일인 만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만 가지의 음성, 천 가지의 소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할아버지 음성, 할머니, 아버지, 아주머니, 어린이, 이 모든 음성을 혼자 구사할 줄 알아야 말 연극(口演)을 실감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음성은 구연에서 제일 귀중한 보배이다. 짐승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바다 소리, 돌 소리, 차 소리, 배 소리.....이 모든 소리를 연습하고 닦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실지 그것의 소리와 근사한 소리를 바로 동화의 그 사건 중에 내면 듣는 어린이의 생각은 바로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된다.

그뿐이 아니다. 먼 소리, 보통 소리, 가까운 소리, 아픈 소리, 성난 소리, 우는소리, 웃는 소리, 소리를 적으려면 한이 없다. 급한 소리, 느린 소리, 뿐만 아니라 동화 사건 가운데 나오는 대화는 바로 내가 직접 그 사람과 얘기하듯이 해야 한다.

- “엄마.”

복동이는 이렇게 불렀다.

“왜 그러니.”

어머니는 대답했다. -

이런 식의 설명을 간접 대화법이라고 말하며 동화에
서는 절대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연극이 아니다.

- “엄마.”

“왜?”

“아버지가 저쪽 가게 집으로 오시래.”

“오냐.” -

이렇게 혼자 두 사람의 역할을 함으로 실지 대화를
해야 한다. 이것을 직접 화법이라고 말한다. 그런 만큼
동화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바로 음성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 말일는지도 모른다. 동화를 하는데 있어서 이 음성
을 잘 이용하여야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화를 할 때, ‘음, 저, 그래서,’ 등의 잡음을 섞
어서는 안된다. 동화법 처음에 말했듯이 지극히 세련되
고 간결한 말을 해야 하며 필요 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것도 금물이다. 위에 기록한 반복법 이외에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 그러기 위하여 명문(明文)의 작품
들을 많이 읽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

동화가 지극히 밝고 맑은 햇빛 같이 어린이의 심령에
투사 되도록 그렇게 조출하고, 간추려진 것이어야 한다.
음성과 화법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연마할 것이다.

(6) 허물을 감추는 법

애써 준비해서 동화하기 위하여 앞에 서면 별로 허를
을 드러낼 까닭이 없겠으나, 그러나 혹시 그럴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한창 재미있게 얘기를 해 나가는 중 갑자기 다음 사건을 잊어버린 경우, 그 사건을 생각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중단해서는 결코 안된다. 임기응변을 짜서 그 곳을 얼른 무사하게 넘기므로 어린이들에게 잊어버렸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말하면 속이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다. 그동화의 최대의 효용을 위해서 허물을 어린이 앞에 드러내는 것은 동화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다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7) 메모를 해갈 것

안전을 위하여 동화의 구성에 따라 조그만 종이에 이야기의 요점들을 메모해 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메모한 것을 어린이들이 눈치채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동화를 위해 준비한 모든 재료는 그 장면에 와서 동화자가 내어놓기 전에 결코 어린이들에게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동화 속에 편지를 읽어야 하는 장면이 있으면 그 편지를 미리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편지를 읽었다고 하는 장면에 직접 그 편지를 읽으면 좋다. 구태여 편지가 아니라도, 쪽지를 전달했다고 하는 때 그 쪽지를 적어 읽으면 좋은 것이다.

(8) 끊임없이 듣는자의 반응을 살필 것

청중의 반응은 성공 여부를 잘 나타내어 준다. 그런 만큼 동화하면서 그 반응을 민감하게 파악하여 항상 긴장도를 유지하며, 혹 주의가 산만해질 때는 재빨리 다시 집중시키고 그 부족을 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듣는자의 반응에 전연 무관심하게 혼자 지껄이면 이것은 허공에 대고 하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 만큼 항상

청중들의 시선을 놓아주지 않는 긴박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듣는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민감히 조처하여야 할 것이다.

4. 동화가 끝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한 동화를 실재에 적용하여 완전히 끝내었으면 다시금 모든 것을 재검토 해볼 것이다. 오늘 동화에 성공한 점이 무엇이며 실패한 점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여 다음 기회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그날의 분위기와 결과를 잘 메모하여 앞으로의 참고를 삼으면 대단히 유익할 것이다. 동화가는 자기의 하는 동화를 무엇보다 귀중히 여길 것이다.

5. 동화의 정도(程度)

동화를 할 때는 보통 어린이로부터 소년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연령을 함께 상대하여 이야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동화의 정도를 그런 곳에 맞도록 하기에는 힘이 들지 모르나 여기서는 각 연령에 비추어 그 정도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유치

- (1) 십분 내외의 시간에 마칠 수 있는 것
- (2) 단순 명료한 내용의 동화
- (3) 동물이 재료일 것(우화)
- (4) 그림 이야기
- (5) 감정의 자극을 심하게 하지 말 것

2) 초등 학교 1,2,3 학년

- (1) 20분 내외의 시간에 마칠 수 있는 것.

- (2) 복선이 있는 내용
- (3) 다소의 교훈을 포함할 것
- (4) 영웅담, 전쟁담
- (5) 상상력을 함양할 것들

3) 상급반

- (1) 20분-40분 내외의 시간
- (2) 자연에 관한 것(과학 문제)
- (3) 역사, 모험, 사실담
- (4) 문학적인 것

이상 그 정도가 막연할지 모르겠으나 다소 참고가 될까 하여 소개한 것이다.

이상 동화법 전체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적어 보았으나,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더구나 전문가의 안목에는 유치한 이론의 전개였을는지 모른다는 생각도 듈다. 그러나 이것은 필자가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붓을 놓는다.

1962년 초여름 대구에서 씀.
1996년 10월 30일 Mt. View에서
컴퓨터에 입력을 완료함.



예수께서 가로사대 어린 아이들을
동남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 이니라.

마19:14

동화처럼 읽는
동화 하는 법

지은이: 강명호
펴낸이: 마운틴뷰 한인 재림교회
박은이: QPS Printing
펴낸 때: 1997년 1월 31일